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overlapping, wavy, horizontal bands in various shades of pink,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The colors range from light, pale pink to a more vibrant, medium pink.

# 농업·농촌경제동향

2014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jiyunpark@krei.re.kr](mailto:jiyunpark@krei.re.kr)/심민희 [min2727@krei.re.kr](mailto:min2727@krei.re.kr)

채상현 [csh0331@krei.re.kr](mailto:csh0331@krei.re.kr))

연락처: 02-3299-4363 / 팩스: 02-964-5631

# 목 차

## 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4
4. 물가 .....	6
5. 금융·환율 .....	12

##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산물 물가지수 .....	15
2. 농림어업 취업자 .....	20
3. 농축수산물 수출입 .....	21

##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29
2. 엽근채소 .....	33
3. 양념채소 .....	39
4. 과일 .....	50
5. 과채 .....	57
6. 축산 .....	64

특별 주제 1. 고랭지배추 면적 변동요인과 전망 .....	75
2.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와 발전방안 ..	90

## 【 요약 】

### I. 국내경제 동향

- 2014년 2/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함.
- 2014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 전기 대비 0.3% 감소,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2014년 2/4분기 총수출은 LCD, 화학제품 등이 늘어 전기 대비 1.9%,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함.
- 2014년 6월 취업자는 25,87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98천명 증가함.
- 2014년 5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가 감소하였으나, 내구재, 비내구재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4% 증가,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함.
- 2014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0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실질로는 3.9% 증가)함.
- 2014년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6으로 전분기 대비 0.1% 하락, 전년 동기대비 0.1% 하락함.
- 2014년 5월중 협의통화(M1, 평잔)는 전월 대비 1.1%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및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5% 증가함.
- 2014년 2/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12원으로 전월말 증가인 1,020원 보다 8원 하락함.

## Ⅱ. 농촌경제 동향

- 2014년 2/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3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상승함.
- 2014년 2/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느타리 참깨 등의 특용작물과 무, 배(신고) 등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임.
- 2014년 2/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8.1로 전년 동기대비 1.4%, 전분기 대비 0.8% 하락함.
- 2014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631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감소하였고, 전분기대비 38.3% 증가함..
- 2014년 1~6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한 2,781백만 달러임.
- 2014년 1~6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총 17,27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 1. 고랭지배추 면적 변동요인과 전망

- 2000년 이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연평균 5% 감소하여 전체 배추 재배면적(연평균 4.4% 감소)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 고랭지배추 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여 단수함수를 추정한 결과, 정식기인 6월 기온과 강수량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의 감소요인으로 기상변화에 따른 상품성 저하, 생산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타작목 전환, 김치수입증가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집중호우로 단수가 급감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단수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단수감소 혹은 변동성 확대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상기온이 단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온상승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가 남부지역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고랭지배추 재배는 소득률이 일정수준 보다 낮아지면서 작물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익성 악화는 2000년 이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 요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됨.
- 고랭지배추 재배시기와 중복이 되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품목들의 조수입 변동을 보면 오이, 토마토 등의 동기간 조수입 증가율이 고랭지배추보다 높았음. 따라서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오이, 토마토 등 상대수익성이 좋은 품목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과 김치 수입량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김치 수입량이 증가하여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과 생산 감소가 수입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과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을 수입김치가 제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관측, 재고 조절 등 정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정책으로 투기적 기대수익이 낮아진 것도 재배면적이 감소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향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당분간 감소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감소율은 점차 둔화되어 일정 정도 감소한 후 전체 고랭지 재배면적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 강원지역의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준고랭지 위주로 수익성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완전고랭지 지대는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여름철 김치나 배추수입과 정부의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으로 향후 고랭지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타 작물과의 상대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와 발전방안

- 정부는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직거래 등 대안 유통채널을 확산시킬 것을 발표하였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에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제시된 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되는 반면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하여 직거래의 본원적 개념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음.
- 기존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정의한 직거래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고 최근 논의되는 직거래 관련 주요 이슈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직거래 활성화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직거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와 거래할 때 중간상인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거래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유통경로에 포함되기도 함.
  - 직거래의 협의적 개념은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지 직매장, 농장직판, 노변판매, 농민장터, 통신주문 판매 등이 포함됨.
  - 광의의 개념인 직거래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 직판장, 전문매장, 소비자단체인 생활협동조합 운영 등이 포함됨.
- 농산물 직거래의 유형은 거래주체와 거래방식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판매형태가 존재함. 농산물 직거래 유형별 판매는 직거래장터, 직매장, 통신판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산물 유통환경이 소비자 유통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산지유통조직의 소비자 대응이 규모화·조직화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유통방식이 등장함.
- 최근 농산물 직거래 관련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직거래장터 판매부류에 가공식품 포함여부
  - 직거래장터 참여 주체와 수입농산물 취급 여부
  - 소비자 단체(한살림, 생협, 아이쿱 등)의 직거래 포함 여부
  -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직거래 매장 운영 여부
  - 농산물 직거래 관련 정책 지원 범위
  -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관련법 충돌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위한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 직거래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 수취가격 증가, 소비자 지불 가격 인하 등의 직거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는 안전성 관련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내산 안전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 본연의 취지를 지향하는 다양한 직거래 방식이 등장하여 직거래 확산 및 홍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I. 국내경제 동향 1)

### 1. 경제성장

- 2014년 2/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6% 각각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화학제품, 자동차, LCD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1% 증가함. 농림어업은 양돈, 한육우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전기 대비 4.1% 감소함.
  - 서비스업은 음식숙박, 운수 및 보관업이 부진하였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서비스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0.7% 증가함.
- 2014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 전기 대비 0.3% 감소,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2014년 2/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6% 증가,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함.
- 2014년 2/4분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1.3% 증가,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함.
- 2014년 2/4분기 총수출은 LCD, 화학제품 등이 늘어 전기 대비 1.9%,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하였고, 총수입은 자동차, 거주자 해외소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0.8% 증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부연구위원(jiyeunpark@krei.re.kr), 심민희 연구원(min2727@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p					2014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G D P 성장률	2.3	3.0	2.1	2.7	3.4	3.7	3.9	3.6
최종소비지출 (민 간)	2.2 1.9	2.2 2.0	1.6 1.7	2.4 2.1	2.3 2.1	2.4 2.2	2.6 2.5	1.6 1.5
총고정자본형성 (건 설) (설 비)	-0.5 -3.9 0.1	4.2 6.7 -1.5	-2.6 1.9 -12.7	5.0 9.8 -3.9	5.9 8.8 1.5	7.8 5.4 10.9	5.9 4.3 7.3	3.4 0.4 7.9
총 수 출	5.1	4.3	5.6	5.9	2.6	3.2	4.5	3.8
총 수 입	2.4	1.6	-0.6	1.4	0.6	4.9	3.5	2.4

주: 2013p, 2014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연간 GDP 성장률은 3.8%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은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중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상반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경제성장 전망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			2014 <sup>e)</sup>			2015 <sup>e)</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 D P	2.4	3.5	3.0	3.8	3.8	3.8	4.0
민 간 소 비	1.9	2.1	2.0	2.1	2.6	2.3	3.6
설 비 투 자	-8.3	6.2	-1.5	7.6	3.9	5.7	6.3
건 설 투 자	6.4	7.0	6.7	2.3	1.2	1.7	2.9
상 품 수 출	6.5	2.7	4.5	3.9	8.2	6.1	7.5
상 품 수 입	-0.4	2.7	1.2	2.6	5.6	4.1	7.7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4.7.10.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 참고  
2. 2014<sup>e)</sup>, 2015<sup>e)</su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 2. 고용

- 2014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함. 실업률(계절조정)은 3.7%로 전년 동기보다 0.6%p 높은 수준이며, 전 분기보다도 0.2%p 상승함.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3.2% 감소함.
- 2014년 6월 취업자는 25,87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98천명 증가함.
- 6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6%로 전년 동월보다 0.4%p 높으며, 전월보다 0.1%p 낮은 수준임.
- 6월 산업별 취업자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조업(16만5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8천명), 숙박및음식점업(12만9천명), 교육서비스업(4만6천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7만6천명), 금융및보험업(-4만8천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2만4천명) 등에서 감소함.

### 【 고용 동향 】

단위: 천명, %

	2012	2013				2014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5,501 61.3	25,091 59.9	26,138 62.2	26,187 62.1	26,078 61.7	25,873 61.5	25,945 61.3	26,767 63.1	2.4 -
취업자	24,681	24,184	25,326	25,410	25,346	25,066	24,913	25,790	1.8
· 농림어업	1,528	1,167	1,686	1,724	1,504	1,520	1,179	1,631	-3.2
· 광공업 (제조업)	4,120	4,172	4,199	4,167	4,261	4,200	4,294	4,334	3.2
· 건설업	1,773	1,656	1,801	1,775	1,783	1,754	1,683	1,813	0.6
실업자	820	907	812	777	733	807	1,031	977	20.3
실업률(계절조정)	-	3.3	3.1	3.1	3.0	-	3.5	3.7	-

자료: 통계청

**【 고용 동향 변화 추이 】**

단위: 천명, %(전년 동월대비)

	2014.4		2014. 5		2014. 6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26,714	3.0	26,762	2.2	26,825	2.0
취업자	25,684	2.3	25,811	1.6	25,875	1.6
(고용률)	(60.6)		(60.8)		(60.9)	
·농림어업	1,563	-1.8	1,656	-3.4	1,675	-4.4
·광공업	4,303	2.2	4,340	3.5	4,360	3.9
(제조업)	4,288	2.3	4,324	3.6	4,345	3.9
·건설업	1,775	-0.2	1,821	0.8	1,842	1.3
·도소매·음식숙박업	5,818	5.5	5,772	3.1	5,803	2.9
·전기·운수·통신·금융	3,077	0.1	3,062	-0.4	3,063	-1.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9,149	2.4	9,160	1.6	9,133	1.8
실업률	3.9		3.6		3.5	
(계절조정)	(3.7)		(3.7)		(3.6)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4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2% 증가, 전년 동기대비로는 2.5% 증가함.
- 2014년 5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전월 대비 -2.3%)가 감소하였으나, 내구재(전월 대비 3.9%), 비내구재(전월 대비 1.7%)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4% 증가,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함.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1/4	4월p	5월p
소매 판매	2.4	0.3	1.2	0.7	1.2	2.5	0.0	1.0
(내구재) <sup>1</sup>	5.3	1.4	2.9	-1.4	-1.5	6.0	-0.8	2.3
(준내구재) <sup>2</sup>	-0.4	2.7	1.6	2.9	1.0	-1.8	-1.4	-2.4
(비내구재) <sup>3</sup>	2.0	-1.4	0.2	0.7	2.8	2.7	0.9	1.9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4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0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실질로는 3.9% 증가)함.
  -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5.3%)이 증가하고, 사업소득(3.2%), 이전소득(1.8%), 비경상소득(20.9%)도 증가
  - 이자율 하락 등으로 재산소득(-10.6%)은 감소
  
- 2014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5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실질로는 3.2% 증가)함.
  - 자동차 구입, 외식, 단체여행 등의 소비 증가로 교통(12.2%), 음식숙박(6.1%), 오락·문화(7.6%) 등이 증가
  - 주거용 연료비 감소로 주거수도광열(-0.7%) 지출이 감소하고, 의류신발(-1.2%)도 감소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소득	6.1	6.9	6.2	6.3	5.4	2.1	1.7	2.5	2.9	1.7	5.0
(경상소득)	6.2	7.4	6.2	5.9	5.4	2.3	2.1	3.0	2.8	1.7	4.4
(비경상소득)	4.3	-2.5	4.8	17.7	4.2	-3.6	-8.5	-10.7	4.8	3.1	20.9
소비지출	2.7	5.3	3.6	1.0	1.4	0.9	-1.0	0.7	1.1	3.0	4.4
(식료품·비주류음료)	2.9	5.9	1.8	4.2	0.0	-0.3	-1.6	1.1	-2.5	2.3	2.1
(의류·신발)	5.9	5.8	9.3	2.1	5.2	2.2	4.8	0.5	0.9	2.6	-1.2
(교통)	2.4	3.6	2.6	-3.4	7.8	1.9	1.9	0.9	3.4	1.6	12.2
(교육)	-2.1	-0.2	0.2	-6.1	-1.4	-1.8	-6.9	0.9	0.7	-0.2	2.6
(음식·숙박)	4.2	7.9	6.2	3.0	0.4	2.6	-0.1	0.4	4.6	5.2	6.1

자료: 통계청

4. 물가

- 2014년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로 전분기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함.
-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로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1.7% 상승함.
  - 상품은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1.6% 상승함.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1.3% 하락, 전년 동월대비 1.0% 하락함.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대비 1.9% 상승함.
  -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 1.6% 상승함.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총 지 수	107.6 (1.6)	107.4 (1.2)	107.9 (1.4)	107.8 (1.0)	107.7 (1.3)	108.8 (1.1)	109.1 (1.6)
상 품	110.2 (1.6)	109.6 (0.6)	110.3 (1.2)	110.1 (0.8)	110.1 (1.1)	111.3 (1.0)	111.4 (1.6)
농축수산물	115.2 (2.1)	111.5 (-1.0)	113.5 (0.2)	107.4 (-4.0)	111.9 (-0.6)	109.7 (-4.8)	109.1 (-2.2)
공업 제품	108.6 (1.0)	108.4 (0.2)	108.8 (1.1)	109.7 (1.4)	108.8 (0.8)	110.4 (1.7)	110.6 (2.0)
서 비 스	105.4 (1.4)	105.7 (1.7)	106.0 (1.6)	106.1 (1.3)	105.8 (1.5)	106.8 (1.3)	107.4 (1.6)
집 세	110.2 (3.0)	110.9 (2.6)	111.6 (2.6)	112.2 (2.5)	111.2 (2.7)	112.9 (2.5)	113.6 (2.4)
공공서비스	100.9 (1.0)	100.9 (0.7)	100.5 (0.3)	100.8 (0.6)	100.8 (0.7)	101.6 (0.7)	101.6 (0.7)
개인서비스	106.1 (1.2)	106.3 (1.9)	106.8 (1.8)	106.7 (1.4)	106.5 (1.6)	107.4 (1.2)	108.2 (1.8)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총 지 수	107.5	107.5	107.3	109.1	109.2	109.1
상 품	109.9	109.6	109.4	111.3	111.5	111.2
농축수산물	113.8	111.6	109.1	109.9	109.4	108.0
공업 제품	108.2	108.3	108.5	110.4	110.7	110.6
서 비 스	105.6	105.7	105.7	107.3	107.5	107.4
집 세	110.7	111.0	111.2	113.5	113.6	113.8
공공서비스	100.9	100.9	100.9	101.6	101.6	101.6
개인서비스	106.2	106.4	106.3	108.1	108.4	108.2

자료: 통계청

- 2014년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6으로 전분기 대비 0.1% 하락, 전년 동기대비 0.1% 하락함.
-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5.6으로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대비 0.1% 상승함.
- 6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02.1로 농산물은 내렸으나 축산물 및 수산물이 올라 전월 대비 0.9% 상승함.
- 6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3.8로 화학제품 등이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보합
  - 서비스는 전월대비 보합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총 지 수	106.3 (-1.9)	105.7 (-2.2)	105.7 (-1.4)	105.3 (-0.8)	105.7 (-1.7)	105.7 (-0.5)	105.6 (-0.1)
농림수산물	105.6 (-5.7)	100.9 (-7.8)	102.8 (-5.9)	98.1 (-4.5)	101.9 (-5.9)	104.2 (-1.3)	102.6 (1.7)
광 산 품	106.8 (1.3)	107.6 (1.3)	108.3 (2.4)	110.0 (4.4)	108.2 (2.4)	110.4 (3.4)	110.3 (2.5)
공 산 품	106.4 (-3.4)	105.4 (-3.9)	105.1 (-2.6)	104.4 (-2.0)	105.3 (-3.0)	104.2 (-2.1)	103.8 (-1.5)
전력/수도/가스	118.5 (5.1)	120.0 (6.7)	120.3 (5.1)	122.0 (5.7)	120.2 (5.7)	126.7 (6.9)	126.8 (5.7)
서 비 스	104.2 (0.4)	104.3 (0.1)	104.7 (0.4)	104.9 (0.5)	104.5 (0.3)	105.5 (1.3)	106.1 (1.7)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총 지 수	105.9	105.5	105.5	105.6	105.6	105.6
농림수산물	103.3	100.4	99.1	104.4	101.2	102.1
광 산 품	107.5	107.7	107.5	111.2	110.4	109.4
공 산 품	105.7	105.2	105.3	103.7	103.8	103.8
전력/수도/가스	120.2	120.0	119.9	126.8	126.8	126.9
서 비 스	104.3	104.4	104.4	106.0	106.1	106.1

자료: 한국은행

- 2014년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7.2로 전분기 대비 3.9% 하락, 전년 동기대비 8.7% 하락함.
- 6월 수출물가지수는 86.6으로 원화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10.6%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함.
- 6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87.1로 전월 대비 0.8%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15.3% 하락함.
- 6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6.6으로 화학제품 등이 상승하였으나 일반기계제품, 통신·영상·음향기기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10.6% 하락함.

【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총 지 수	93.8 (-6.5)	95.5 (-4.5)	94.8 (-2.8)	90.7 (-3.1)	93.7 (-4.3)	90.7 (-3.3)	87.2 (-8.7)
농림수산물	99.2 (-14.6)	101.1 (-10.3)	96.3 (-16.0)	93.9 (-8.6)	97.6 (-12.5)	92.8 (-6.4)	88.3 (-12.7)
농 산 물	149.5 (20.1)	157.5 (11.0)	155.8 (-7.9)	146.3 (1.2)	152.3 (5.0)	152.7 (2.2)	151.6 (-3.7)
수 산 물	86.3 (-24.2)	86.3 (-18.1)	80.2 (-20.6)	80.1 (-13.2)	83.2 (-19.3)	77.9 (-9.7)	73.2 (-15.2)
공 산 품	93.7 (-6.5)	95.5 (-4.5)	94.8 (-2.7)	90.7 (-3.0)	93.7 (-4.2)	90.7 (-3.3)	87.2 (-8.7)
화 학 제 품	109.0 (-5.7)	108.6 (-4.8)	108.1 (-1.0)	103.9 (-3.7)	107.4 (-3.8)	103.8 (-4.8)	99.1 (-8.8)
제1차금속제품	93.6 (-9.6)	91.9 (-11.6)	88.9 (-10.7)	84.9 (-10.8)	89.8 (-10.7)	86.2 (-7.8)	83.4 (-9.2)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출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총 지 수	95.3	94.4	96.9	88.2	86.8	86.6
농림수산물	101.1	99.3	102.8	90.1	87.8	87.1
농 산 물	157.4	155.8	159.3	153.8	151.0	150.1
수 산 물	86.3	84.4	88.1	74.8	72.7	72.0
공 산 품	95.2	94.4	96.8	88.2	86.8	86.6
화 학 제 품	109.1	107.3	109.4	100.0	98.4	99.0
제1차금속제품	93.3	90.8	91.4	84.1	83.2	82.9

자료: 한국은행

- 2014년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96.0으로 전분기 대비 3.7% 하락, 전년 동기 대비 7.5% 하락함.
- 6월 수입물가지수는 95.5로 원화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대비 8.8%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함.
  - 원재료의 경우, 전월 대비 0.6% 상승함.
  - 자본재는 전월 대비 0.7%, 소비재는 전월 대비 0.3% 하락함.
- 6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7.9로 전월 대비 1.5% 하락, 전년 동월대비 6.3% 하락함.

【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총 지 수	103.9 (-10.0)	103.8 (-8.0)	103.5 (-5.9)	99.4 (-5.3)	102.7 (-7.3)	99.7 (-4.1)	96.0 (-7.5)
농림수산물	103.2 (-5.2)	104.9 (-4.4)	100.6 (-6.0)	95.5 (-7.7)	101.0 (-5.9)	98.9 (-4.1)	99.5 (-5.1)
농 산 물	106.8 (-5.0)	105.5 (-6.6)	98.6 (-11.5)	91.5 (-15.1)	100.6 (-9.5)	94.4 (-11.6)	92.9 (-12.0)
축 산 물	109.0 (-1.7)	113.0 (0.0)	111.9 (1.2)	109.6 (0.3)	110.9 (0.0)	115.4 (5.9)	118.7 (5.1)
광 산 품	121.2 (-12.7)	120.8 (-8.9)	122.7 (-5.6)	117.1 (-3.3)	120.5 (-7.7)	117.5 (-3.0)	113.4 (-6.2)
공 산 품	96.7 (-8.6)	96.7 (-7.5)	95.6 (-5.9)	92.2 (-6.1)	95.3 (-7.1)	92.2 (-4.7)	88.6 (-8.4)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입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총 지 수	104.4	102.5	104.7	97.1	95.5	95.5
농림수산물	105.8	104.2	104.5	101.2	99.5	97.9
농 산 물	105.9	105.6	105.1	95.0	93.0	90.7
축 산 물	113.5	112.4	113.1	119.1	118.7	118.5
광 산 품	121.4	119.3	121.8	114.3	112.6	113.5
공 산 품	97.2	95.4	97.5	89.8	88.1	87.9

자료: 한국은행

## 5. 금융·환율

- 2014년 5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 대비 1.1% 증가함 (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0.0% 증가).
- 2014년 5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및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5%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
  -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가계의 일시 여유자금 예치, 기타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운용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2년미만금전신탁은 기업의 자금예치 등에 따라 증가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계절조정기준 0.6%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6.6% 증가), 광의유동성(L)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1.2%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말대비 7.7% 증가).

【 통화지표 증감률 (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 동월대비, %

	2013						20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 <sup>1</sup>	10.7	9.5	11.5	10.7	12.1	11.3	10.9	9.8	10.1	9.1	10.0
M2 <sup>2</sup>	4.6	3.9	4.6	4.7	5.1	5.3	5.2	5.2	5.5	5.5	6.0
Lf <sup>3</sup>	6.5	6.3	6.7	6.7	6.8	6.6	6.7	6.4	6.4	6.2	6.6
본원통화 <sup>4</sup>	11.1	13.8	14.7	10.1	12.8	13.7	14.8	13.2	12.4	12.7	13.5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4년 6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부각 등으로 큰 폭 하락
  - 회사채금리도 우량물, 비우량물 모두 큰 폭 하락
  - 6월중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는 외국 중앙은행 및 은행 투자 자금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
- CD(91일) 금리는 기준금리와의 격차 축소 부담 등으로 소폭 하락에 그침.

【 금 리 동 향 】

단위: %

	2013			201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2.83	2.94	2.94	2.89	2.85	2.87	2.88	2.84	2.75
콜 금 리 <sup>1</sup>	2.50	2.50	2.50	2.50	2.49	2.48	2.49	2.49	2.48
CD유통수익률(91일)	2.66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회 사 채 <sup>2</sup>	3.25	3.37	3.36	3.32	3.28	3.30	3.30	3.26	3.17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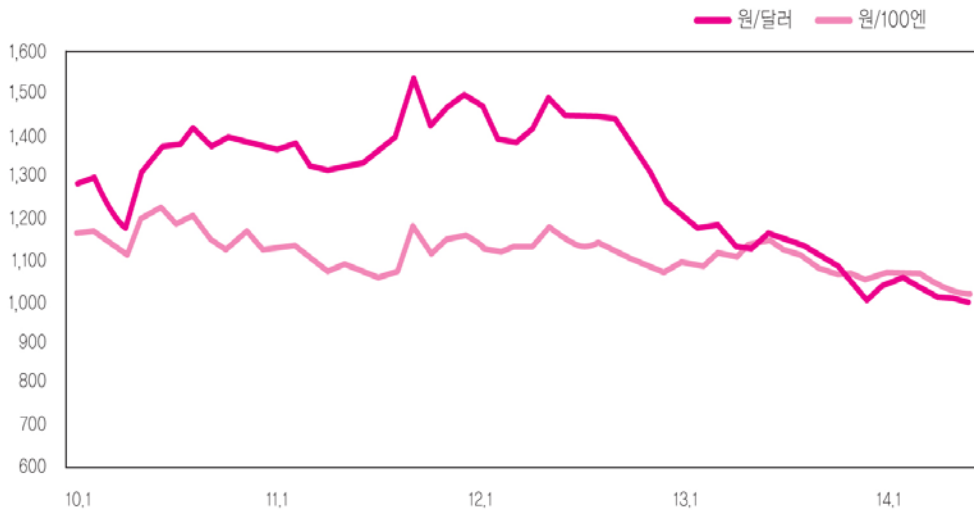
- 2014년 2/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12원으로 전월말 증가인 1,020원 보다 8원 하락함.
  - 5월 중순 이후 빠르게 낮아진 환율 수준에 대한 경계감, 이라크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기조적 원화 강세 기대, ECB의 완화조치, 미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 지속
- 2014년 2/4분기말 원/100엔 환율은 전월보다 4원 하락한 999원을 기록함.

**【 원화 환율 동향 】**

	2013						20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원/달러	1,120	1,109	1,073	1,060	1,059	1,045	1,072	1,068	1,063	1,032	1,020	1,012
원/100엔	1,144	1,130	1,096	1,078	1,034	994	1,039	1,049	1,030	1,007	1,003	999

주: 기말 고시 환율 기준  
 자료: 외환은행

**【 원화 환율 추세 】**





## II. 농촌경제 동향2)

### 1. 농산물 물가지수

#### 1.1. 생산자물가지수

- 2014년 2/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3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상승함.
  - 식료품 중 특히 축산물류가 전년 동기대비 15.8%로 크게 상승함.
  - 농업용품의 경우는 사료가 전년 동기대비 1.8% 하락한 반면, 비료 및 농약이 4.9%, 농업용 기계가 1.8% 상승함.

【 농업분야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식료품	109.0	107.0	108.3	108.3	1.2	0.0
식료품(이외)	106.1	105.6	105.5	105.4	-0.2	-0.1
곡류	133.4	133.8	131.5	129.6	-3.1	-1.4
채소	117.5	90.1	98.7	79.7	-11.5	-19.2
과실	120.6	118.6	131.5	128.3	8.2	-2.4
축산물	86.5	92.3	96.1	106.9	15.8	11.2
육가공품	84.8	85.3	89.9	96.2	12.7	6.9
낙농	117.6	116.3	130.4	129.1	11.0	-1.0
과실 및 채소가공품	123.9	123.4	120.4	120.3	-2.5	-0.1
사료	117.1	117.6	116.0	115.5	-1.8	-0.5
비료 및 농약	103.7	103.7	108.6	108.8	4.9	0.2
농업용 기계	114.6	114.6	116.6	116.6	1.8	0.0

자료: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부연구위원(jiyunpark@krei.re.kr)과 채상현 연구원(csh0331@krei.re.kr)이 작성하였음.

## 1.2. 소비자물가지수

- 2014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대비 0.3%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은 전분기대비 0.6% 하락함.
- 농산물의 경우, 과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여 전분기대비 4.6% 하락하였으며, 축산물은 전분기대비 5.6% 상승함.

【 농업분야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소비자물가	107.6	107.4	108.8	109.1	1.6	0.3
농축수산물	115.2	111.5	109.7	109.1	-2.2	-0.6
농산물	126.1	117.6	110.3	105.2	-10.6	-4.6
곡물	126.1	127.2	124.5	123.3	-3.0	-0.9
채소	119.0	99.6	90.0	79.7	-19.9	-11.4
과실	123.9	124.5	118.1	118.2	-5.1	0.0
기타농산물	162.6	150.7	140.1	131.2	-12.9	-6.4
축산물	96.3	98.5	105.6	111.5	13.2	5.6
수산물	112.5	114.2	113.8	115.5	1.2	1.5

자료: 통계청

## 1.3.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 2014년 2/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느타리 참깨 등의 특용작물과 무, 배(신고) 등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임.

【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31.9	132.6	130.6	128.5	-3.1	-1.6
콩(백태)	128.8	129.6	85.6	83.1	-35.9	-2.9
배추	115.9	73.7	38.6	34.0	-53.8	-11.8
무	60.1	77.5	46.0	52.6	-32.1	14.3
고추(화전)	141.9	128.7	103.7	100.7	-21.7	-2.9
마늘(난지)	88.8	81.7	63.1	62.8	-23.2	-0.5
양파	193.8	191.0	84.8	65.3	-65.8	-23.0
사과(후지)	121.2	118.7	146.1	144.4	21.7	-1.1
배(신고)	199.2	190.1	131.7	146.6	-22.9	11.3
느타리	104.4	101.3	100.4	105.0	3.6	4.5
참깨	114.4	115.5	105.1	105.1	-9.0	0.0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1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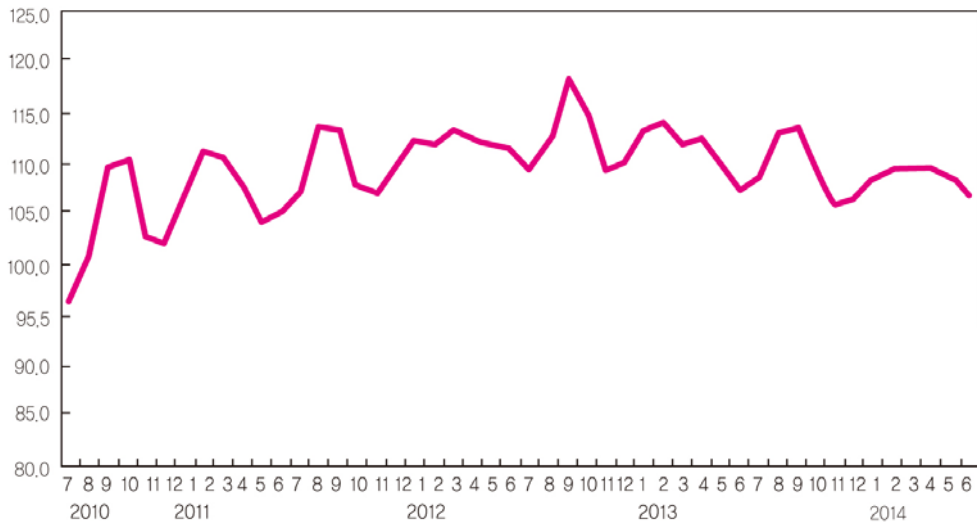
- 2014년 2/4분기 곡물 가격 중 쌀은 전분기보다 1.6%, 콩(백태)은 전분기보다 2.9% 하락함.
- 2014년 2/4분기 채소 가격은 무를 제외한 배추, 양파, 고추(화전), 마늘(난지) 등의 품목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4년 2/4분기 과일 가격은 사과(후지)는 전분기보다 1.1% 하락한 반면, 배(신고)는 전분기보다 11.3%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1.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sup>3)</sup>

- 2014년 2/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8.1로 전년 동기대비 1.4%, 전분기 대비 0.8% 하락함.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무 등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쌀, 배추, 오이, 토마토, 파, 양파, 마늘 등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함.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된 물가지수임.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



【 주요 농산물 생활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27.58	128.49	127.24	126.15	-1.8	-0.9
쇠고기(국산)	89.36	87.20	92.29	92.92	6.6	0.7
돼지고기	92.72	99.99	108.50	123.40	23.4	13.7
닭고기	104.28	104.20	104.25	107.36	3.0	3.0
사과	136.91	139.16	122.95	123.02	-11.6	0.1
배추	120.05	95.79	47.91	43.24	-54.9	-9.7
무	66.02	71.69	44.21	49.73	-30.6	12.5
오이	152.38	86.90	136.88	85.70	-1.4	-37.4
토마토	113.93	90.24	116.37	91.18	1.0	-21.6
파	107.54	88.81	61.27	51.07	-42.5	-16.6
양파	162.01	195.60	106.99	89.57	-54.2	-16.3
마늘	110.07	112.05	87.76	84.85	-24.3	-3.3

자료: 통계청

## 1.5.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

- 2014년 2/4분기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01.0으로 전년 동기대비 9.7%, 전분기대비 3.9% 하락함.
  - 신선채소는 배추, 양배추, 호박, 파, 양파 등의 품목 하락으로 인하여 전분기 대비 12.4% 하락함.
  - 신선과실은 사과, 배 등의 하락으로 전분기대비 21.6% 하락함.

【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신선식품	119.7	111.8	105.1	101.0	-9.7	-3.9
신선어개	110.4	112.1	110.8	112.4	0.2	1.4
신선채소	119.9	98.4	90.2	79.1	-19.6	-12.4
배추	120.1	95.8	47.9	43.2	-54.9	-9.7
양배추	134.6	82.8	58.6	50.1	-39.5	-14.6
무	66.0	71.7	44.2	49.7	-30.6	12.5
당근	227.3	179.9	81.5	100.2	-44.3	23.0
버섯	114.4	104.2	99.8	105.5	1.3	5.7
풋고추	105.9	102.9	111.6	106.8	3.8	-4.4
호박	152.4	86.9	136.9	85.7	-1.4	-37.4
파	143.5	88.5	132.8	95.9	8.3	-27.8
양파	118.8	71.4	115.5	72.7	1.8	-37.1
신선과실	113.9	90.2	116.4	91.2	1.0	-21.6
사과	107.5	88.8	61.3	51.1	-42.5	-16.6
배	162.0	195.6	107.0	89.6	-54.2	-16.3
귤	123.9	124.5	118.1	118.2	-5.1	0.0
딸기	136.9	139.2	123.0	123.0	-11.6	0.1
바나나	169.4	172.9	122.4	124.6	-27.9	1.8
기타신선	124.9	124.9	136.2	136.2	9.1	0.0

자료: 통계청

##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4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631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감소하였고, 전분기대비 38.3% 증가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분기대비 24.0% 증가한 905천 명이었고, 여성은 62.3% 증가한 727천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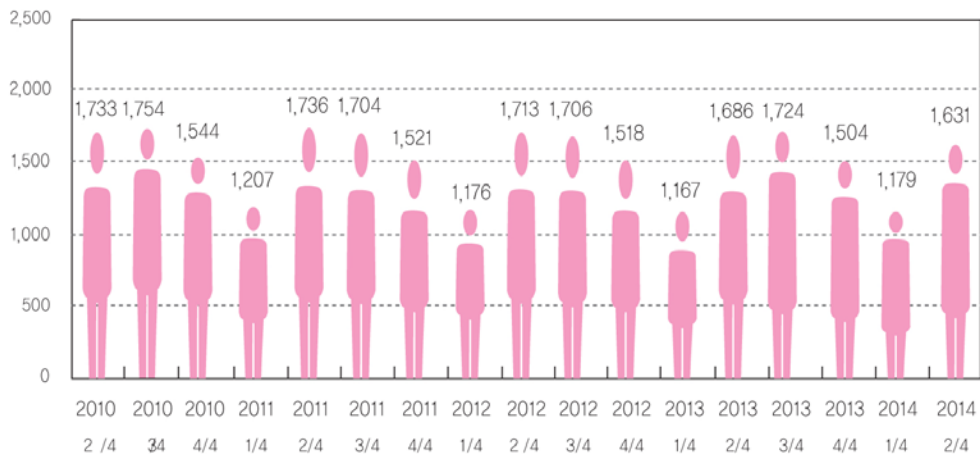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3		2014		증감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4,184	25,326	24,913	25,790	1.8	3.5
	농림어업	1,167	1,686	1,179	1,631	-3.3	38.3
	남성	733	932	730	905	-2.9	24.0
	여성	434	754	448	727	-3.6	62.3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 2014년 2/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는 1~17시간 취업자수와 18~35시간 취업자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전분기 대비 증가하여 전체적인 취업자수는 증가하였음.
  - 일시 휴직자는 12천 명으로 전분기대비 33.3% 감소하였고, 주당 평균시간은 41.8시간으로 전분기대비 39.3% 늘어남.

【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3		2014		증감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전체	1,167	1,686	1,179	1,631	-3.3	38.3
1~17시간	276	99	257	84	-15.2	-67.3
18~35시간	362	348	383	314	-9.8	-18.0
36시간 이상	508	1,224	520	1,222	-0.2	135.0
일시 휴직	21	14	18	12	-14.3	-33.3
주당 평균시간	29.4	41.2	30.0	41.8	1.5	39.3

자료: 통계청

### 3. 농축수산물 수출입

#### 3.1. 수출 동향

- 2014년 1~6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인삼, 유자차 등의 신선농식품과 비스킷, 제3맥주 등 가공식품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3,025백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인삼과 딸기 등이 마케팅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새송이 버섯 등은 웰빙 식품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돼지고기 수출이 증가한 반면 가금육류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함.
- 수산물 수출액은 해조류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어류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함.

**【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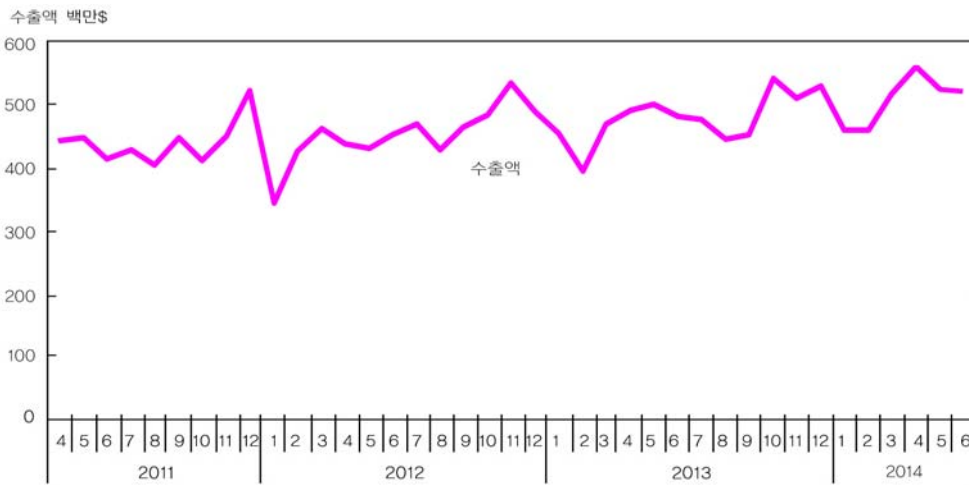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648	2,781	1,785	3,025	8.3	8.8
농 산 물	1,222	2,279	1,380	2,536	12.9	11.3
축 산 물	58	209	56	208	-3.8	-0.5
임 산 물	368	292	350	282	-5.0	-3.7
수 산 물	333	1,038	351	1,007	5.2	-3.0
전 체	1,982	3,818	2,136	4,032	7.8	5.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복숭아 등의 과실류와 호박 등의 채소류 등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8.1%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2. 수입 동향

- 2014년 1~6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17,741백만 달러로 축산물과 임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 【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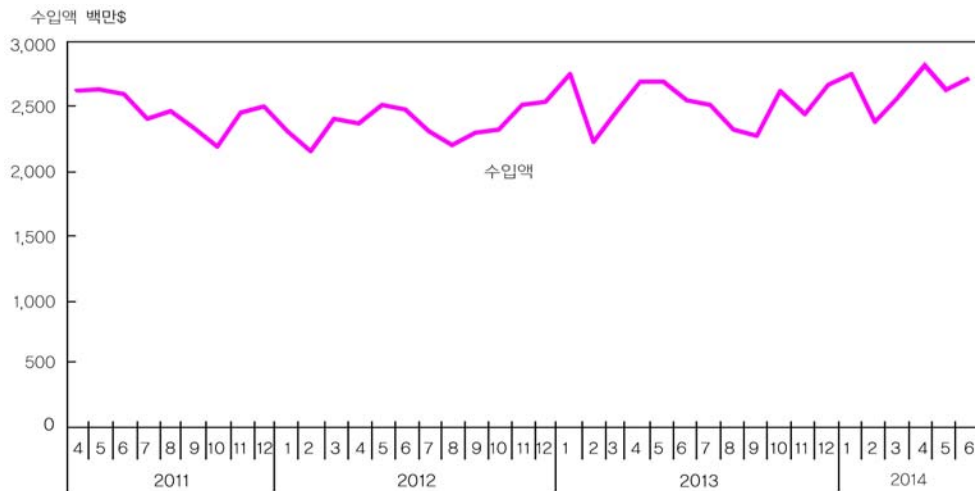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3,635	15,417	24,077	15,611	1.9	1.3
농 산 물	16,139	9,993	16,375	9,615	1.5	-3.8
축 산 물	608	2,263	646	2,606	6.3	15.2
임 산 물	6,888	3,160	7,056	3,390	2.5	7.3
수 산 물	2,558	1,862	2,356	2,131	-7.9	14.5
전 체	26,192	17,279	26,433	17,741	0.9	2.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두류와 과실류 등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6.5%, 전월 대비 3.2% 증가함.

#### 【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3. 국가별 수출입 동향

#### 3.3.1.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6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현지 마케팅 노력과 한류의 영향으로 인삼, 유자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내 한국산 과자류가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비스킷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0.3% 증가한 6억 1,029만 달러임.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03,990	465,557	385,234	457,492	-4.6	-1.7
농 산 물	181,294	332,870	176,518	337,591	-2.6	1.4
축 산 물	16,263	72,038	16,693	69,734	2.6	-3.2
임 산 물	206,433	60,649	192,023	50,167	-7.0	-17.3
수 산 물	57,997	142,972	62,380	152,799	7.6	6.9
전 체	461,988	608,529	447,613	610,291	-3.1	0.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과실류와 버섯류, 낙농품은 수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곡류는 1.7%, 채소류는 0.8%, 화훼류는 53.7% 수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798	907	725	892	-9.1	-1.7
과실류	15,222	24,551	17,509	29,418	15.0	19.8
채소류	892	6,151	456	6,104	-48.9	-0.8
화훼류	978	6,120	380	2,832	-61.2	-53.7
버섯류	11	28	22	49	94.9	75.5
낙농품	5,387	35,831	7,256	39,907	34.7	11.4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1~6월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0.1% 감소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468,639	2,355,228	3,134,517	2,289,086	-9.6	-2.8
농 산 물	2,072,406	1,455,570	1,644,399	1,281,348	-20.6	-12.0
축 산 물	12,592	45,473	15,556	50,294	23.5	10.6
임 산 물	1,383,640	854,185	1,474,562	957,444	6.6	12.1
수 산 물	495,279	518,089	379,972	582,403	-23.3	12.4
전 체	3,963,917	2,873,317	3,514,489	2,871,489	-11.3	-0.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2.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6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6억 5,78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함. 이는 백합, 장미 등 화훼류 수출이 일본의 엔저 지속으로 감소한 반면, 일본 내 지속되고 있는 저가 및 저도주 소비기조로 여름철 맥주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 과일류는 포도, 유자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7.9% 감소함.
  - 채소류는 김치, 토마토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함.
  - 화훼류는 국화, 백합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46.8%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26,367	619,115	482,660	657,836	13.2	6.3
곡류	5,861	4,337	4,274	3,300	-27.1	-23.9
과실류	5,053	12,086	4,011	11,132	-20.6	-7.9
채소류	26,354	98,124	32,972	92,488	25.1	-5.7
화훼류	2,362	18,488	1,517	9,831	-35.8	-46.8
버섯류	276	913	287	908	4.0	-0.5
낙농품	1,222	5,294	653	3,674	-46.6	-30.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1~6월 일본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29,255	222,346	329,361	229,531	43.7	3.2
농 산 물	35,221	147,899	34,120	131,527	-3.1	-11.1
축 산 물	17,741	24,414	18,267	23,807	3.0	-2.5
임 산 물	176,293	50,033	276,974	74,198	57.1	48.3
수 산 물	21,506	62,906	15,390	47,063	-28.4	-25.2
전 체	250,761	285,252	344,751	276,594	37.5	-3.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3.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6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억 8,24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함. 이는 곡류와 낙농품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과실류, 화훼류, 버섯류 등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 채소류는 딸기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채소종자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23.6% 감소함.
- 과일류는 사과, 배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4.8% 증가함.
- 버섯류는 양송이버섯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2.2%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3,009	253,022	112,435	282,443	9.2	11.6
곡류	2,779	2,922	2,509	2,820	-9.7	-3.5
과실류	4,595	6,632	3,817	8,278	-16.9	24.8
채소류	2,606	15,923	2,802	12,160	7.5	-23.6
화훼류	69	877	89	1,108	28.7	26.4
버섯류	1,640	3,173	1,837	3,878	12.0	22.2
낙농품	2,757	2,912	2,410	2,837	-12.6	-2.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1~6월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4.6%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379,320	3,225,550	5,883,330	4,056,007	74.1	25.7
농 산 물	2,390,441	2,053,057	4,984,130	2,686,718	108.5	30.9
축 산 물	203,666	733,123	231,355	924,713	13.6	26.1
임 산 물	785,213	439,369	667,846	444,576	-15.0	1.2
수 산 물	32,957	119,233	36,244	110,851	10.0	-7.0
전 체	3,412,277	3,344,783	5,919,575	4,166,858	73.5	24.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3.4.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6월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유럽 경기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새송이버섯 등의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한 1억 5,226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9.0% 감소함.
  -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함.

#### 【 대EU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79,293	154,383	81,985	152,263	3.4	-1.4
농 산 물	76,729	143,894	79,083	141,849	3.1	-1.4
축 산 물	295	6,333	179	5,760	-39.5	-9.0
임 산 물	2,269	4,157	2,723	4,654	20.0	12.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1~6월 EU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축산물과 임산물,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한 16억 2,791만 달러임.

#### 【 대EU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3. 1~6		2014. 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15,628	1,417,283	818,032	1,569,363	-10.7	10.7
농 산 물	566,407	807,162	419,973	803,577	-25.9	-0.4
축 산 물	100,076	423,087	128,300	548,649	28.2	29.7
임 산 물	249,145	187,034	269,759	217,137	8.3	16.1
수 산 물	9,684	52,266	11,498	58,556	18.7	12.0
전 체	925,312	1,469,549	829,530	1,627,919	-10.4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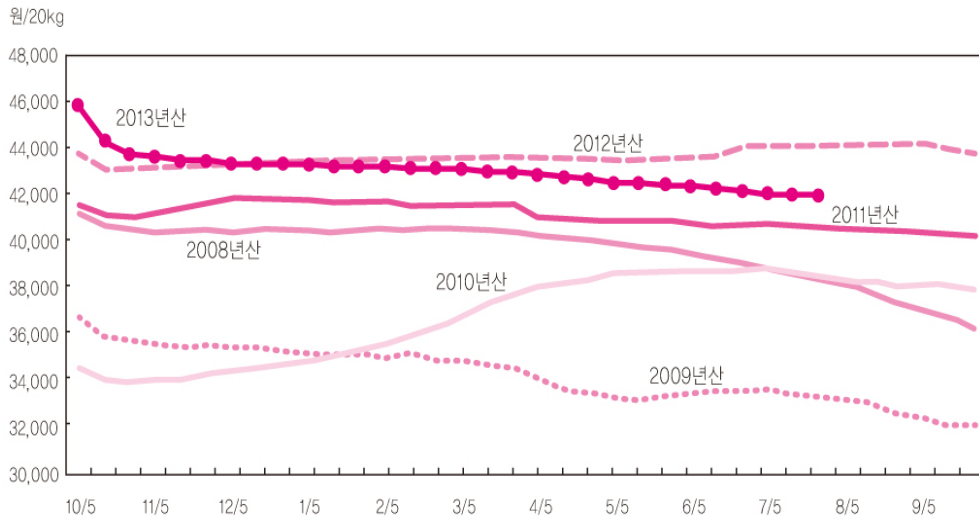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 1. 곡물<sup>4)</sup>

##### 1.1. 쌀

【 산지 쌀 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 ● 2/4분기 동향

- 2013년산 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2014년 들어 하락세를 지속함.
- 시장공급물량과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이 전년보다 늘어나 2014년 2/4분기 들어 산지 쌀 가격 하락폭이 확대됨.
- 2014년 6월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 평균대비 3.5% 하락한 20kg당 4만 2,282원으로 전년대비 3.5%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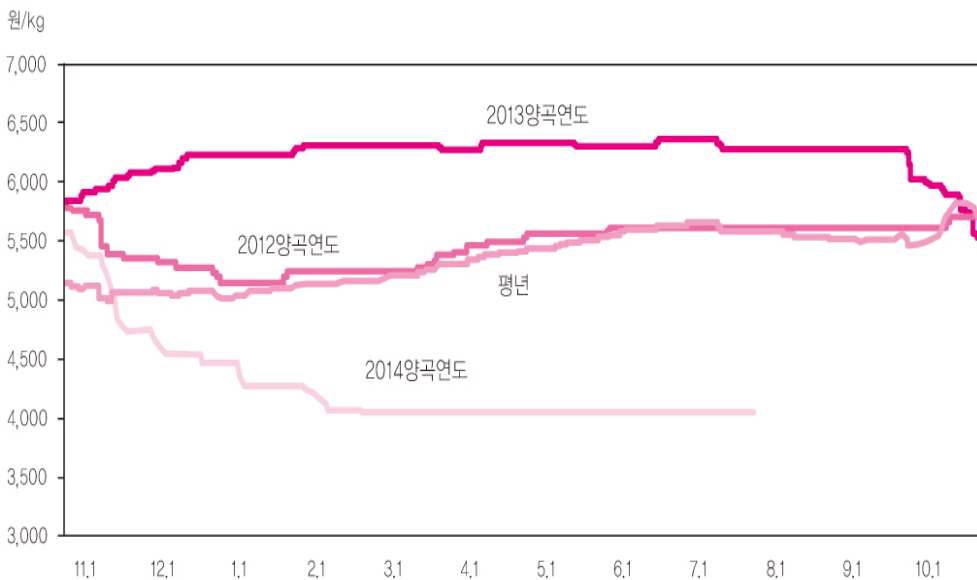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연구위원(taehun@krei.re.kr), 김종진 부연구위원(jkim@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김대석(sorihunt@krei.re.kr), 공민지(kmj@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동주(djlee@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단경기(7~9월)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중인 산지 쌀 가격은 7월 평균 20kg 당 4만 2,038원으로 전년과 수확기대비 각각 4.7%, 4.1% 하락함.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0.9%(8천 ha) 감소한 82만 5천 ha로 지난(2014년 3월 초) 조사치보다 0.1%p(1천 ha) 줄어든 수준임.
- 산지유통업체의 채고 소진시기가 9월 하순으로 작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 추석이 빠르고 조생종 벼 재배의향면적은 늘어남에 따라 9월 신·구곡 교체시기에 2013년산(구곡) 가격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산지 쌀값은 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경기(7~9월) 가격은 수확기대비 6.4% 하락한 20kg당 4만 1,000원 내외로 전망됨.

1.2. 콩

【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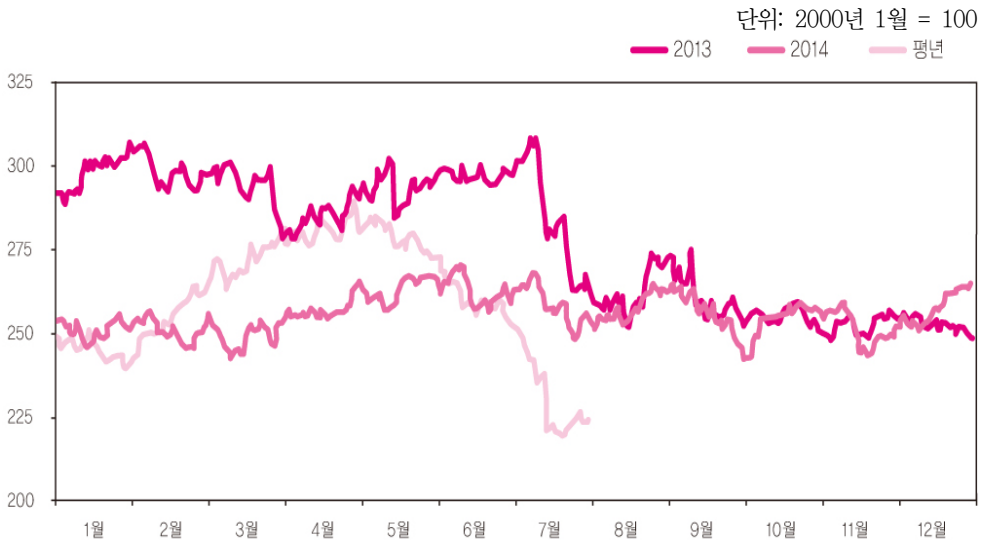
- 국산 콩의 7월 31일까지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36.0%, 평년대비 27.8% 하락한 4,057원/kg임.
- 3월 이후 산지 및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은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정부가 공공비축물량 8,90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지의 일부 유통업체들도 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산 콩 도매가격은 약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1.3. 국제곡물

【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



- 주 1)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2) 쌀은 시카고상품거래소의 Rough rice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

● 2/4분기 동향

- 2/4분기 주요 국제곡물 선물가격(밀, 옥수수, 콩, 쌀 교역량 가중평균)은 우크

라이나 사태와 남미 출하지연(브라질 체선문제, 아르헨티나 출하보류), 미국 기상악화 등으로 전 분기 대비 6.7% 상승

- 다만, 낙관적인 2014/15년 수급 전망, 브라질 체선문제 완화, 미국 기상상황 개선 등으로 5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을 하락세를 보임.
- 밀은 전 분기 대비 5.8% 상승하였으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 생산국(EU-28, 러시아 등)의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하락세를 보임.
- 옥수수는 미국 기상악화에 따른 파종지연 등으로 전 분기 대비 6.0% 상승함. 하지만 5월 이후 전년 대비 호전된 2014/15 수급 전망치 발표, 기상이 파종 및 생육에 적합한 조건으로 개선됨에 따라 하락세가 나타남.
- 콩은 남미 출하지연, 중국 수입수요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8.6% 상승함. 다만, 미국 기상호조와 브라질 체선문제 완화로 인해 6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남.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주요 국제곡물 선물가격(밀, 옥수수, 콩, 쌀 교역량 가중평균)은 기상 호조 및 재배면적 증가로 전 분기 대비 17.1% 하락 전망.
- 세계 주요 곡물 총생산량은 전년(2013/14년) 대비 0.7% 증가한 24억 7,717만 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6억 3,885 톤, 기말 재고율은 2.2%p 상승한 26.6%로 전망됨. 이러한 수급상황 개선이 국제곡물 선물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3개년 평균보다 많은 수준임.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증가와 수출국간 경쟁 심화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13/14년의 풍작으로 인한 이월재고량 증가와 전년과 비슷한 생산량이 예상 되어 2014/15년 기말재고율은 전년 대비 4.8%p 상승한 28.3%로 전망됨. 기말재고 증가와 미국 콘벨트 지역의 기상호조로 옥수수 선물가격을 5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기상호조에 의한 단수 증가와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미국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기 때문임. 특히 재배면적은 3월 31일 발표된 재배의향면적 조사의 전년 대비 6% 증가보다 많은 전년 대비 11% 증가로 나타남.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콩 가격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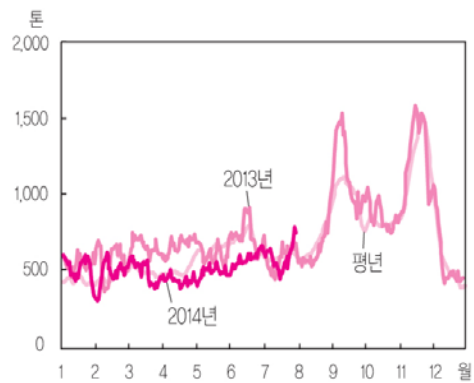
## 2. 엽근채소<sup>5)</sup>

### 2.1. 배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 】



【 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 2/4분기 동향

- 2/4분기 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상품 2,874원/10kg)은 작년 동기보다 55% 낮았으며,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1/4분기 대비 하락세
- 겨울배추 저장 출하량이 크게 많았고, 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가격은 하락세 지속

\* 2분기: (2014년) 2,874원/10kg, (2013년) 6,326원/10kg, (평년) 6,875원

####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고랭지배추 생산량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3% 내외 감소할 전망
  -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5,425ha로 작년보다 1% 감소하지만, 평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 고랭지배추 단수는 가뭄 및 고온에 따른 칼슘결핍현상, 무름병 등으로 작년보다 9% 내외 감소한 10a당 3,345kg으로 전망됨.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최병욱 연구위원(bochoi@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이금호(leekumho@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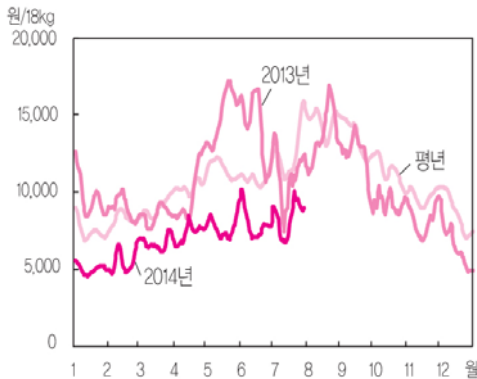
- 3/4분기 배추 출하량은 산지 출하가 감소하여 작년보다 적을 전망
- 3/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하지만, 대체재 가격 약세 및 소비 부진으로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 그러나, 집중호우, 고온 등의 영향을 받을 경우 출하량과 가격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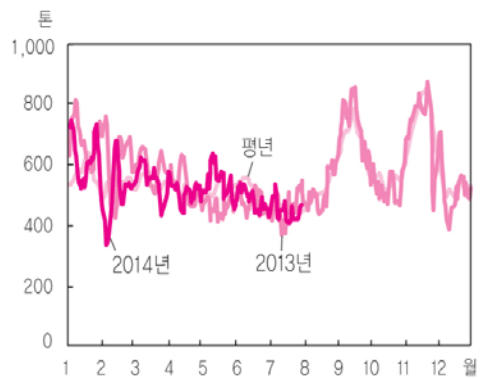
- 2014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및 최근 가격이 낮아 작년보다 9%, 평년보다 4% 감소한 13,805ha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이 1%, 충청 15%, 호남 9%, 영남이 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작물로는 콩, 대파 등인 것으로 나타남.

## 2.2. 무

【 무 도매가격 동향 】



【 무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4분기 동향

- 2/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41%, 30% 낮았음.
- 월동무 생산량 및 저장 출하량 증가로 2/4분기 무 가격은 작년 및 평년보다 크게 낮았음. 작년 가을무 출하기 이후 가격 약세 지속되고 있음.

- \* (4월) 7,364원/18kg, (5월) 7,705원, (6월) 8,022원
- \* (2014 2/4분기) 7,697원/18kg, (2013 2/4분기) 13,073원, (평년 2/4분기) 11,048원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고랭지무 생산량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 6% 내외 감소할 전망
  - \*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2,129ha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3%,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 고랭지무 생산량은 추정단수를 적용할 경우, 6만 톤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 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3/4분기 무 출하량은 작년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3/4분기 무 도매가격은 고랭지무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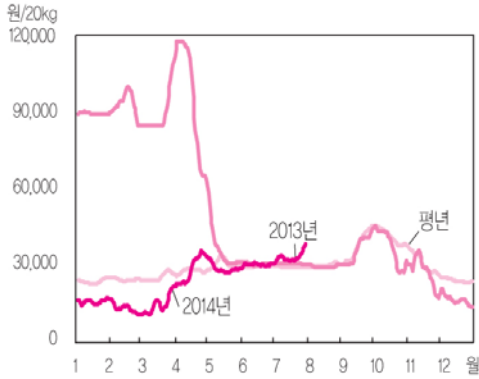
- 2014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및 최근 가격이 낮아 작년보다 10%, 평년보다 11% 감소한 6,759ha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호남이 15%, 충청 12%, 경기·강원 5%, 영남이 1% 감소하고 대체작물로는 콩, 들깨, 대파 등인 것으로 나타남.

## 2.3. 당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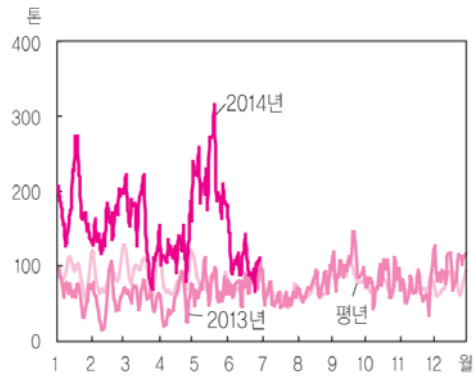
● 2/4분기 동향

- 2/4분기 당근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상품 29,273원/20kg)은 작년 동기보다 47% 낮았으나, 하우스당근이 본격 출하되면서 1/4분기 대비 99% 상승세.
- 하우스, 노지당근의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은 상승세 지속.
  - \* 2분기: (2014년) 29,273원/20kg, (2013년) 55,185원/20kg, (평년) 29,918원

【 당근 도매가격 동향 】



【 당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8월 말까지 출하되는 봄당근(하우스, 노지) 저장량은 생산량 감소로 작년보다 14%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고랭지당근 재배면적은 123ha로 작년보다 23% 높으나, 평년보다는 21% 낮은 수준임(6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3/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저장출하량 감소로 8월까지 상품 20kg당 4만원 중반대의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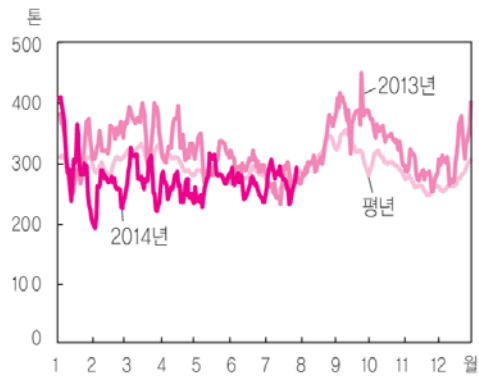
- 2014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파종기 가격 강세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 7% 증가할 전망
- 지역별로는 충청과 영남이 각각 1%, 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근으로의 전환품목은 배추, 무, 대파 등인 것으로 나타남.

## 2.4. 양배추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



【 양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 2/4분기 동향

- 2/4분기 가격은 봄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
  - \* 2/4분기 상품 도매가격은 3,033원/8kg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40%, 52% 낮은 수준임.
- 봄양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작년보다 18% 내외 증가하였음.

###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은 강원과 경북지역이 작년보다 각각 10%, 8% 증가해 1,056ha 전망(6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3/4분기 양배추 가격은 재배면적과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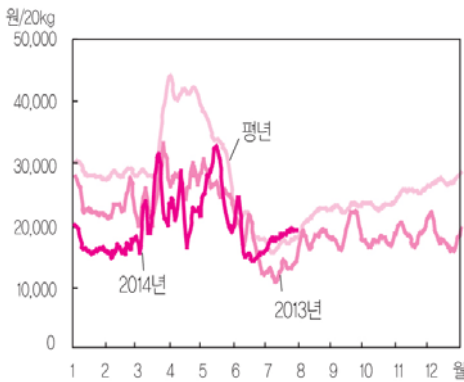
### ● 2014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 2014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무, 감자에서 작목전환이 이루어져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 1% 증가할 전망

- 지역별로는 영남과 호남이 각각 1%, 8% 감소하나, 충청이 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2.5. 감자

【 수미 도매가격 추이 】



【 감자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 2/4분기 동향

- 2/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만 1,810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8%, 31% 낮았음.
- 2013년부터 이어진 가격 약세와 금년 노지봄감자 생육기 기상 양호로 단수가 평년보다 16% 증가함.

\* (2014) 21,810원/20kg, (2013) 23,720원/20kg, (평년) 31,630원/20kg

###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고랭지감자 생산량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6%, 21% 감소한 약 9만 3천 톤 전망
- \*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6%, 17% 감소한 3,152ha로 추정됨
- \* 고랭지감자 단수는 작년과 비슷하고 평년보다 6% 감소한 2,946kg/10a로 추정됨.



-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전북은 증가하지만 전남, 경남, 제주가 줄어 작년보다 13% 감소 전망
- 3/4분기 감자 도매가격은 노지봄감자 저장량이 평년보다 많지만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작년 및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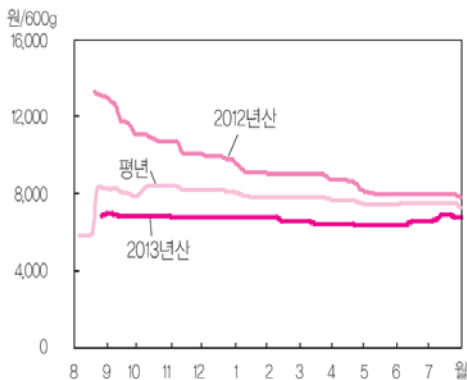
● 2014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

- 2014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2년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3%, 4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가을감자는 전체 감자 재배면적 중 약 9%를 차지하며 작년 제주지역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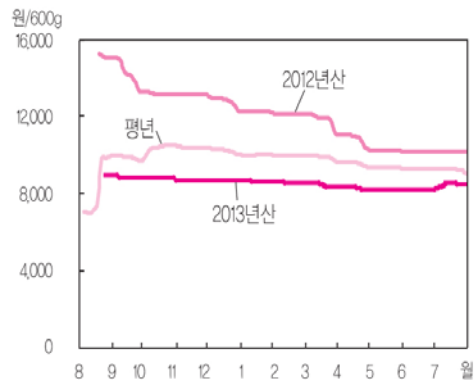
### 3. 양념채소6)

#### 3.1. 건고추

【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양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1: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주2: 평년 도매가격은 2008년 8월~2013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도매가격은 햇 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국승용 연구위원(gouksy@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4분기 동향

- 건고추(화진) 2/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2% 낮은 6,47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산지가격은 16% 낮은 4,820원 수준이었음.
  - \* 도매가격: (금년) 6,470원/600g → (전년) 8,270 → (평년) 7,590
  - \* 산지가격: (금년) 4,820원/600g → (전년) 5,770
- 이는 2012년산 이월 재고가 많고, 2013년산 생산량 증가로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이 많았기 때문임.
- 2014년산 재배면적은 건고추 가격 하락으로 전년산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 재배방식별로는 노지(멀칭·터널)재배가 전년보다 13% 감소하나, 비가림(하우스)재배는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2014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노지재배	비가림재배	전체
강원·경기	-12.1	2.0	-11.9
영 남	-11.8	1.9	-11.6
호 남	-15.9	0.6	-15.4
충 청	-11.8	-0.1	-10.9
전 체	-13.1	1.1	-12.6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1일 표본농가 조사치.

- 7월 21일 표본농가 조사결과, 현재까지 고추 생육 상황은 전년 동기 대비 ‘ 좋음 ’ 31%, ‘ 비슷 ’ 29%, ‘ 나쁨 ’ 41%로 조사되었음.
  - \* 기상이 양호했던 호남은 ‘ 좋음 ’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영남은 ‘ 나쁨 ’이 60%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영남(경북)지역은 고추 정식 이후 지속된 고온 및 가뭄으로 바이러스 발병이 증가하였고 석회 결핍, 일소과 등 생리장해가 발생하여 생육이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2014년산 고추 전년 대비 생육 상황 】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강원·경기	35.4	24.3	40.3
영 남	18.9	21.4	59.7
호 남	51.3	30.0	18.8
충 청	13.3	33.4	53.3
전 체	30.5	28.5	41.1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1일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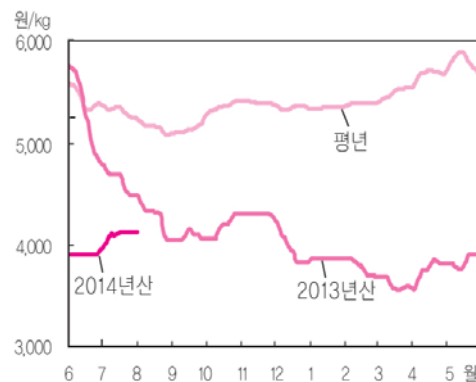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재배면적 감소와 초기 작황 부진 등으로 2014년산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어 전고추 3/4분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3.2. 마늘

【 난지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깎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9년 5월~2014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4분기 동향
  - 2013년산 마늘 재고량이 많아 2/4분기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5대 도매시장)은 전년, 평년 동기보다 각각 23%, 26% 낮고, 깎마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34%,

평년보다 32% 낮음.

\* 난지형: (금년) 2,754원/kg, (전년) 3,586원/kg, (평년) 3,701원/kg

\* 간마늘: (금년) 3,852원/kg, (전년) 5,879원/kg, (평년) 5,669원/kg

- 국내산 마늘 출하량 증가로 2/4분기 수입량은 전년, 평년 동기 대비 각각 36%, 21% 감소

\* 수입량: (금년) 10,599톤, (전년) 16,682톤, (평년) 13,419톤

● 2013년산 이월재고량 증가, 2014년산 생산량은 감소

- 2013년산 난지형 저장마늘 이월재고량은 25,285톤(5월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

-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2014년산 생산량이 감소하여 7월 마늘 산지 가격은 상승세

\* 남해 공판가격: (상순) 2,518원/kg, (중순) 2,547원/kg, (하순) 2,637원/kg

\* 창녕 공판가격: (상순) 2,187원/kg, (중순) 2,370원/kg, (하순) 2,510원/kg

- 2014년산 마늘 저장업체 입고계획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전년보다 19% 감소한 10만 5,600톤 전망

- 입고계획량 중 남도마늘 입고는 대부분 완료, 7월 말 기준 대서마늘 입고율은 60% 수준

- 2014년산 난지형 마늘 평균 입고(예상)가격은 kg당 약 2,100원이고, 품종별로 남도종은 1,900원, 대서종은 2,300원 내외 전망

【 2014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 추정 】

단위: 톤, 원/kg, %

연산	7월 말 기준 입고량	전체 입고계획량	평균 입고예상가격
2014	86,602	105,625	2,093
2013	85,802	130,269	2,156
증감률	0.9	-18.9	-2.9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1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5년산 마늘 재배의향 관망세
  - 2015년산 마늘 초기 재배의향은 2014년산보다 5% 감소
    - \* 농가수취가격 하락으로 충청, 호남, 제주지역 재배의향 감소, 최근 산지가격이 상승한 영남지역 재배의향 증가
    - \* 품종별 재배의향은 한지형이 2%, 난지형은 5% 감소
  - 재배의향을 결정하지 못해 관망하고 있는 농가가 17.3%로 많고,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아 향후 마늘 재배의향은 변동 가능성 큼.

【 2015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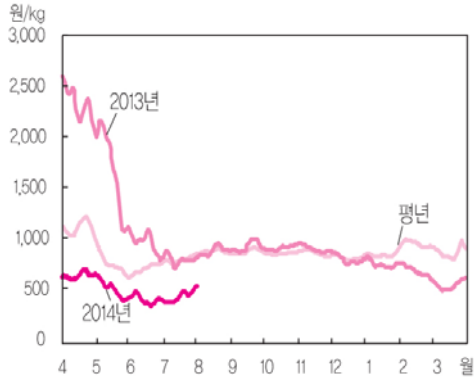
구분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형	-6.4	-	1.0	-	-1.9
난지형	-3.0	-7.3	0.3	-13.4	-5.3
전 체	-5.4	-7.3	0.5	-13.4	-4.5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1일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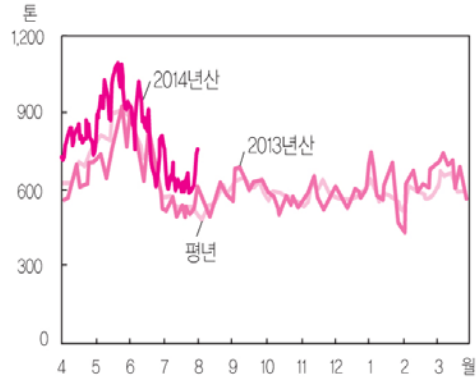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산 마늘 생산량이 감소하고 산지가격이 상승하여 7월 난지형 마늘 5대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23%, 전월보다 20% 증가한 상품 kg당 3,326 원임. 8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강보합인 kg당 3,300~3,600원 전망
  - 2014년산 마늘 생산량이 감소하여 3/4분기 난지형 마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2,623원)보다 높을 전망. 2013년산 정부수매·비축량이 지속 방출될 계획으로 난지형 마늘 가격의 향후 추가 상승 수준은 크지 않을 전망
  - 2013년산 마늘 이월재고량이 점차 소진되고, 도매시장 햇마늘 유통량이 많아져 3/4분기 깎마늘 도매가격은 2/4분기 대비 강세 전망

### 3.3. 양 파

【 도매가격 동향 】



【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9년 4월~2014년 3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2/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8%, 37% 낮은 539원임.
    - \* (금년) 539원/kg → (전년) 1,686원 → (평년) 861원
  - 2014년산 양파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생산량이 늘어났음.
  - 7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4% 낮은 456원임. 7월 상순 399원에서 중·하순 483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 \* 7월 중·하순 입고가 마무리 되면서 상품 양파의 출하량이 상순보다 감소하였음.
  
- 2014년산 양파 저장 동향
  - 2014년산 양파 입고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6%, 27% 증가한 77만 톤으로 예상됨. 입고 가격은 360원/kg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1%, 40%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014년산 양파 입고량, 입고가격 】

연산		입고량(톤)	입고가격(원/kg)
2014년		770,529	360
2013년		661,860	740
평년		604,835	600
증감률 (%)	전년	16.4	-51.3
	평년	27.4	-39.9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1일 저장업체 조사치.

- 농가 보유량(가저장량)은 약 6만 톤으로 전년 동기(3만 7천 톤)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됨. 정부 수매 비축 물량(1만 5천 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8월에 집중 출하될 것으로 예상됨.

● 3/4분기 전망

- 3/4분기 양파 상품 도매가격은 중만생종 생산량 증가로 입고량이 많아 2/4분기(539원/kg)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 농가 가저장 양파가 집중 출하되는 8월에는 가격 약세가 예상되며, 입고된 저장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9월 이후에도 입고량이 많아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 일 것으로 전망됨.
- 7월 21일 표본농가 조사 결과, 3/4분기 파종되는 2015년산 양파의 재배의향면적은 가격 하락으로 2014년산 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014년산과 비슷하며, 중만생종은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2015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14년산 대비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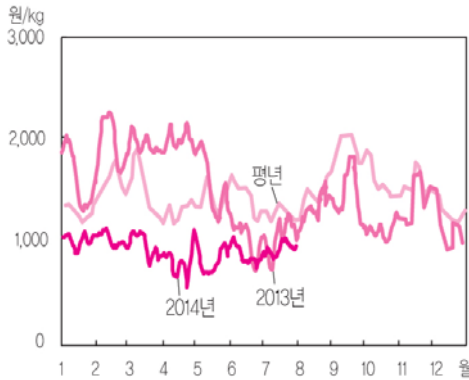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청	전체
조생종	-1.6	-2.0	-	-	2.5	-	-0.3
중만생종	-9.0	-10.3	-4.1	-5.4	-12.0	-8.8	-7.9
전체	-8.1	-8.8	-4.1	-5.4	0.5	-8.8	-6.8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1일 표본농가 조사치.

### 3.4. 대 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대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9년~2013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대파 2/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847원(중품 663원)으로 전년(1,562원) 보다 46% 낮고 평년(1,405원) 보다 40%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847원/kg → (전년) 1,562원 → (평년) 1,405원

\* (4월) 819원/kg → (5월) 832원 → (6월) 890원 → (7월) 939원

- 고온과 가뭄으로 병충해가 확산되어 상품성이 좋지 않은 대파가 출하되었음.

-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어 전북지역 출하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5~6월 대파 출하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가격 약세를 보임.

- 강원지역 고랭지대파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초기 생육이 부진하였음.

- 국내산 대파 가격하락과 생산량 증가로 4~6월 대파 총 수입량은 전년 15,676톤에서 금년 12,989톤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음.

\* (금년) 12,989톤 → (전년) 15,161톤 → (평년) 13,350톤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에는 출하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가을대파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경기·강원지역 노지대파가 주 출하될 예정임.



- 5월 이후 대파가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물량이 많아 3/4분기 대파가격은 전년 동기(상품 1,284원/kg)보다 낮은 1,000~1,100원/kg으로 전망됨.
- \* 7월 21일 표본농가 조사결과, 가격 약세로 8월 출하면적은 4% 감소하였으나, 가격 상승 시 일시적인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가을대파 재배면적 증가와 가격 관망으로 출하가 지연되어 가을·겨울대파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격 약세로 겨울대파 정식의향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남지역 노지대파 정식면적 증가로 겨울대파 출하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을·겨울대파 정식면적 및 의향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8~10월 정식의향	-8.7	-5.0	-7.8	-2.3	-4.5
겨울대파 면적	-0.6	2.5	2.4	-2.7	1.2
가을,겨울대파 면적	10.0	8.6	2.7	-5.1	5.6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1일 표본농가 조사치.

- 고자리파리, 잎굴파리 등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어 상품 출하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기상상황과 관리 여부에 따라 추가 단수 감소가 예상됨.
- 재배면적이 증가한 중국 산동성 지역 수확이 본격화되어 산지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산 대파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량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3.5. 주요 양념채소 가구 소비동향**

● 구매경험률<sup>7)</sup>

- 2/4분기는 건고추 가구 구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로 3~4월에는 가구의 1%만이 건고추를 구매한 경험이 있었으며 6월에는 4%의 가구가 건고추

7) 소매점에서 1회 이상 구매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

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늘과 양파는 성철하기인 6월의 가구 구매 경험률이 4~5월보다 높았으며, 1개월 동안 마늘을 1번 이상 구매한 가구의 비중은 15~25%, 양파를 1번 이상 구매한 가구의 비중은 45~53%로 나타났다.

**【 주요 양념채소 가구 구매경험률, 2/4분기 】**

단위: %

	4월	5월	6월
진고추	1.2	1.3	4.1
마늘	15.0	18.3	24.5
양파	45.1	50.3	52.5

자료: 칸타월드패널

● 구매액<sup>8)</sup>

- 주요 양념채소 가구 구매액은 전년 같은 분기대비 40~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가구 구매액이 줄어든 것은 양념채소의 소매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2/4분기 진고추 가구 구입액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74억원, 마늘 구입액은 전년보다 46% 감소한 652억원, 양파 구입액은 전년보다 40% 감소한 1,003억 원으로 추산된다.

**【 주요 양념채소 가구 구매액, 2/4분기 】**

단위: 백만원, %

	진고추	마늘	양파
2013	15,021	120,135	167,951
2014	7,362	65,152	100,260
증감률	-51.0	-45.8	-40.3

자료: 칸타월드패널

8) 소비자 패널 조사자료의 구매액을 근거로 추정된 전국 가구 구매액

### 3.6. 양념채소 중기선행관측

- 2/4분기 특징
  - 건고추는 5월 하순까지 정식이 완료되는 시기로 저장 물량이 주로 소비된다.
  - 4월부터 조생 양파의 출하가 이루어지고, 5월 중순부터는 저장성 있는 중만생 양파의 출하가 이루어진다. 난지형 마늘은 5월 중순부터 남부지방에서 수확 작업이 이루어지고, 한지형은 6월에 수확이 이루어지므로 2/4분기에는 저장 마늘이 주로 소비된다.
  - 2/4분기의 대파는 전남 신안과 진도의 겨울대파 수확이 종료되고 전북, 충청, 경기 등으로 산지가 확대되는 시기로 산재하고 있는 산지의 출하 상황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비교적 큰 시기이다.
- 3/4분기 양념채소 전망
  - 2014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이 줄고, 작황도 양호하지 못하여 햇 건고추의 거래 비중이 높은 8~9월 건고추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산 마늘 입고량은 평년과 비슷한 10만 6천톤 수준으로 거래 가격은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산 정부와 농협 비축 물량이 순차적으로 방출되면서 마늘 가격을 안정화를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양파는 입고량과 농가 보유량이 평년보다 많아서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보유량 중 야적 물량은 8월 이후에는 상품성이 저하되므로 7~8월 집중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시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입고량이 많기 때문에 평년보다 이른 8월부터 입고 물량의 출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야적된 양파가 소진되고 상품성이 양호한 저장 양파가 출하되기 시작하는 8월 중순부터는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파는 가격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수확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포전이 많아 가격이 1천원을 넘으면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을 하락시키는 출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작황이 부진하여 상품성이 양호한 대파의 비중은 많지 않으나 출하 대기물량이 많아 도매가격이 1,000~1,100원/kg 수준에서 등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4. 과일<sup>9)</sup>

### 4.1. 사과

【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사과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산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2/4분기 저장 후지 사과의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반입량 증가(전년대비 44%)로 전년보다 5%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5만원이었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사과 가격은 반입량 증가(전년대비 30%)로 전년보다 낮았음. 저장 후지 사과의 평균도매가격은 전년보다 5%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5만 6천원이었고, 햇사과 쓰가루의 가격은 17% 낮은 4만 7천원이었음.
  - 8월 쓰가루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전년대비 5%)로 전년(4만 5,555원)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홍로 도매가격은 전년(5만 7,321원)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추석 성수기 출하량이 전년보다 조금 적었으나, 홍로의 과실 비대가 매우 양호하여 대과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4년 생산량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전년보다 1% 줄고, 단수도 5%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6% 적은 46만 5천톤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는 생산량이 3%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사과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4년(A)	21,399	2,171	465
2013년(B)	21,602	2,285	494
평년	21,193	2,115	450
증감률(A/B)	-0.9	-5.0	-5.9

주: 생산량은 유목에서 생산된 물량도 포함시켜 산정한 수치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7월 31일 기준 전망치(2014년 단수)

4.2. 배

【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배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8~12년산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2/4분기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 상자에 4월은 4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17% 낮았음. 하지만 저장물량의 조기 소진으로 반입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하여 5월은 전년보다 9% 높은 4만 9천원, 6월은 27% 높은 4만 9천원이었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신고 도매가격은 재고량 부족으로 전년(3만 8천원)보다 89%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7만 2천원이었음.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배 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전년(4만 6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추석 이후에는 수요 감소, 품위가 낮은 배의 출하로 가격 하락이 전망됨.
  
- 생산량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 적은 27만 5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성목 면적이 전년보다 4% 줄었지만, 단수가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배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4년	12,230	2,245	275
2013년	12,727	2,217	282
증감률	-3.9	1.2	-2.7

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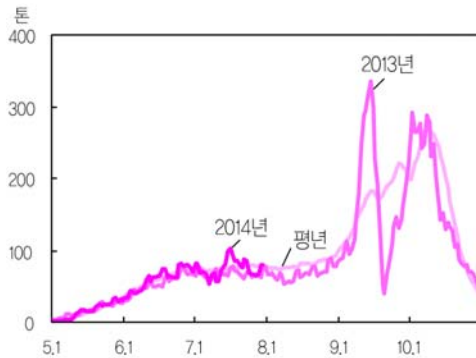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7월 31일 기준 전망치(2014년 단수)

### 4.3. 감귤

【 하우스온주 도매가격 동향 】



【 하우스온주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4분기 동향
  - 2/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은 kg당 6,700원으로 전년보다 3% 낮았음.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4% 증가하였기 때문임.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은 kg당 4,740원으로 전년(5,500원)보다 14% 낮았음. 이는 시장 반입량이 전년보다 30% 증가하였기 때문임.
  - 8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이른 추석(9.8)에 맞춰 출하하기 위해 가운시기를 앞당긴 후기가온 농가가 많아 전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전년보다 5% 감소한 52만 7천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노지온주 면적이 전년보다 2% 감소하였고, 착과수가 전년보다 적어 단수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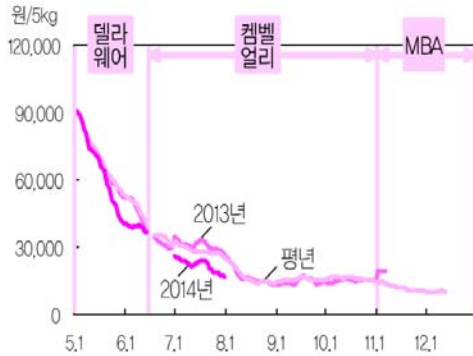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톤, %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4년	16,865	3,122	527
2013년	17,165	3,227	554
증감률	-1.7	-3.2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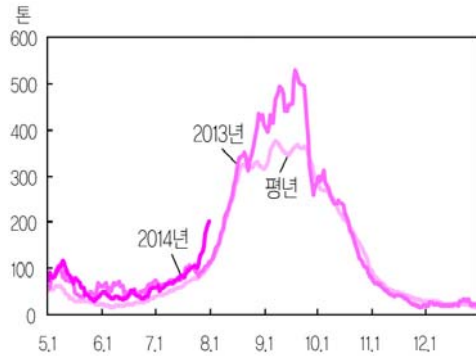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2013년), 농업관측센터 7월 31일 기준 전망치(2014년 단수)

#### 4.4. 포도

【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포도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4분기 동향

- 5월 델라웨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2kg 상자에 2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5% 높았음. 순별로는 중순 이후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였는데, 이는 국내 포도 출하량이 중순부터 증가하였기 때문임.
- 6월 델라웨어 도매가격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4천원, 거봉은 1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 11% 낮았음. 이는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았기 때문임.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캠벨얼리 도매가격은 상품 2kg 상자에 8,100원, 거봉은 1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2%, 24% 낮았음. 이는 작황 호조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10% 가량 증가했기 때문임.
- 8~9월에는 노지포도 생산량 증가로 출하량이 많아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한 26만 9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시설 포도 생산량은 성목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노지포도는 성목면적이 3% 줄었지만, 생육이 양호하여 단수가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할 전망이다.

【 포도 생산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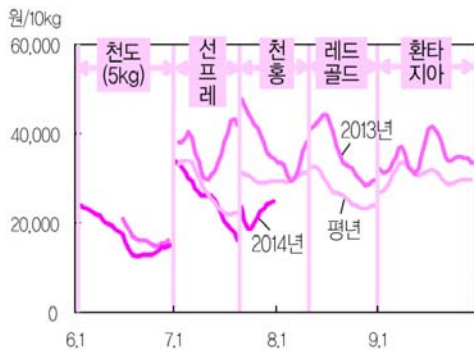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시설 포도	2014년	2,553	1,971	50
	2013년	2,532	1,912	48
	증감률	0.8	3.1	4.0
노지 포도	2014년	11,466	1,908	219
	2013년	11,836	1,790	212
	증감률	-3.1	6.6	3.2
전체	2014년	14,019	1,919	269
	2013년	14,368	1,812	260
	증감률	-2.4	5.9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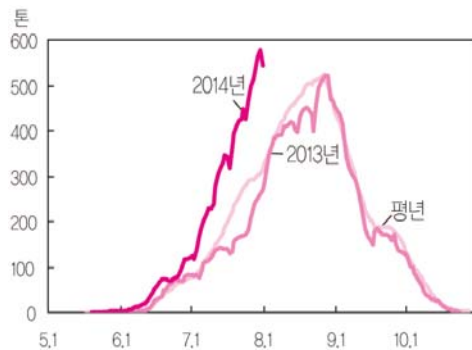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7월 31일 기준 전망치(2013~14년 작형별 단수)

4.5. 복숭아

【 천도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복숭아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4분기 동향

- 6월 천도 복숭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상자에 1만 7천원으로 전년과 비슷하였음. 전년 가격과 비교 가능한 6월 중·하순 가격은 전년보다 11% 낮았음. 출하량 증가로 복숭아 반입량은 전년보다 67% 많았기 때문임.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선프레(천도계)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38% 낮았고, 월봉(유모계)는 상품 4.5kg 상자에 1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8% 낮았음. 이는 복숭아 반입량이 전년보다 3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임.
  - 8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11% 가량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보다 11% 많은 21만 5천톤으로 전망됨. 성목면적이 전년보다 2% 증가한데다, 동해가 있었던 전년보다 단수도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복숭아 생산량 전망 】

단위: 천톤, %

		2014년	2013년	증감률
유모계	조생종	45	41	10.8
	중생종	77	69	11.6
	만생종	52	46	12.5
	계	174	156	11.7
천도계	조생종	16	15	9.6
	중생종	17	16	9.2
	만생종	8	7	10.4
	계	41	37	9.7
전 체		215	193	11.3

자료: 통계청(2013년 전체 생산량), 농업관측센터 7월 31일 기준 전망치

4.6. 수입과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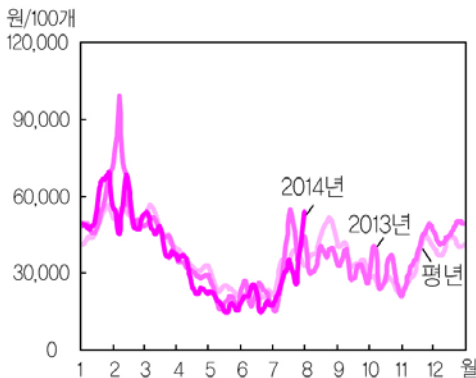
- 체리
  - 4~6월 체리 수입량은 6,855톤으로 전년보다 12% 많았음. 5월 수입량은 캘리포니아산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적었으나, 6월은 북서북지역의 기상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해 수입량이 늘었음.

- 망고
  - 4~6월 망고 수입량은 4,910톤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망고의 국내 수요 확대로 수출국의 물량 증가세가 컸기 때문임.
- 오렌지, 포도
  - 4~6월 오렌지 수입량은 3만 6천톤으로 전년보다 46% 적었음.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의 냉해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급감하였기 때문임.
  - 4~6월 포도 수입량은 3만 1천톤으로 전년과 비슷하였음.
- 바나나, 파인애플
  - 4~6월 바나나 수입량은 필리핀 작황이 양호해 전년보다 26% 많은 10만 8천톤임.
  - 4~6월 파인애플 수입량은 2만 2천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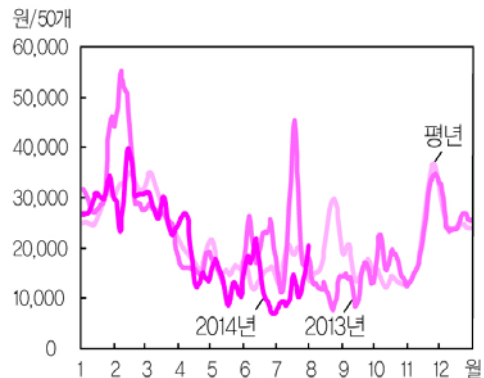
## 5. 과채<sup>10)</sup>

### 5.1. 오이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이장은(leeje@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부연(sese85@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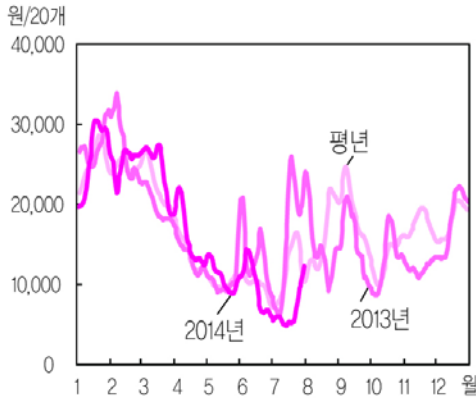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4월 2만 8,600원, 5월 1만 8,100원, 6월 1만 9,9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2만 2,2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0%, 18% 낮았음.
- 2/4분기는 충청지역의 반축성작형 출하가 많은 시기인데, 충청 일부지역에서 정식시기가 앞당겨지고, 작년 출하기 가격이 좋아 재배규모가 확대되는 등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음. 또한, 생육 상황도 양호에 4~6월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5%, 26% 많았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4월 1만 8,800원, 5월 1만 3천원, 6월 1만 4,4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0% 낮은 1만 5,400원이었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다가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3만 100원으로 작년보다 15% 낮았음.
- 백다다기오이 8월 가격은 7월 하순 주산지 강우로 인해 출하가 주춤하여 가격이 일시 상승하겠으나, 중순 이후 지속적인 출하 증가로 가격은 다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충청지역의 억제작형 정식 확대로 9월 출하량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7월 취청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1만 1,500원으로 작년보다 50% 낮았음.
- 취청오이는 충청지역의 여름작형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5.2. 애호박

【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애호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 2/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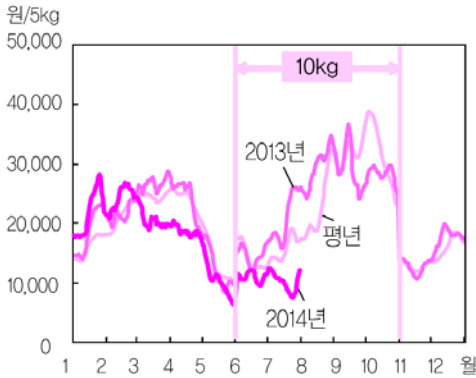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4월 1만 5,900원, 5월 1만 900원, 6월 9,9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1만 2,3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 낮지만, 평년보다는 7% 높았음.
- 4~6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15% 많았음. 영남지역에서는 이른 정식으로 인해 작물의 노화 속도가 빠르고 병해충이 증가하는 등 출하가 감소하였지만, 충청 지역의 조기정식 및 출하면적 증가로 예년보다 출하가 일찍 시작되었음.

### ●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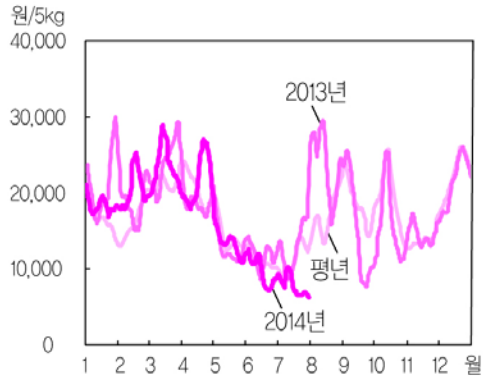
- 7월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6,700원으로 강원지역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57% 낮았음.
- 8~9월은 강원지역의 출하가 지속되지만 7월 낮은 가격 형성으로 인해 재배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 출하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작황은 작년에 비해 양호해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5.3. 토마토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4분기 동향

- 유럽계 반입(5kg 상자) 비중이 높은 4~5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작년보다 각각 23%, 17%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8,700원, 1만 300원이었음. 6월은 일본계 반입(10kg 상자)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로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작년보다 24%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1천원이었음.
- 2/4분기 일반토마토 4~6월 평균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5%, 49% 많았음.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4월 2만 1,700원, 5월 1만 3,400원, 6월 9,800원이었음. 2/4분기 4~6월 평균가격은 1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3% 높았으나, 평년보다는 2% 낮았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3kg 상자에 4월 1만 8,800원, 5월 1만 3,200원, 6월 8,7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1만 4,700원으로 작년보다 8% 낮았음.
- 2/4분기 전체 방울토마토 4~6월 평균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36%, 26% 많았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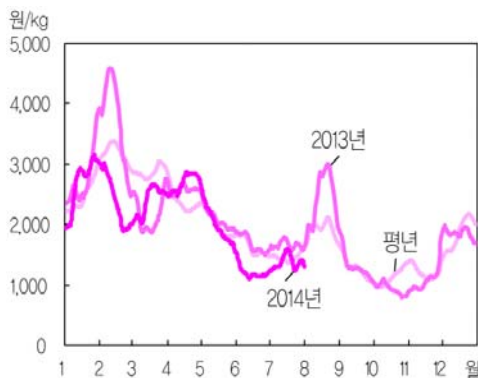
- 7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반입량이

크게 늘어 상품 10kg에 1만 300원으로 작년보다 50%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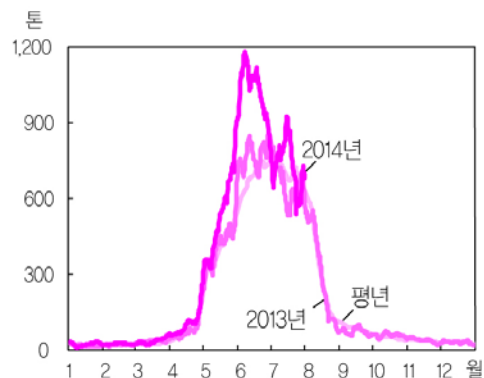
- 7월 원형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에 7,800원으로 작년보다 39% 낮았음. 대추형은 3kg 상자에 8,200원으로 작년보다 25% 낮았음. 원형과 대추형을 포함한 반입량은 작년보다 15% 많았음.
-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강원지역에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가격은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방울토마토는 충청·강원지역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품종 전환이 많아 원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작년보다 감소하는 반면, 대추형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5.4. 수박

【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수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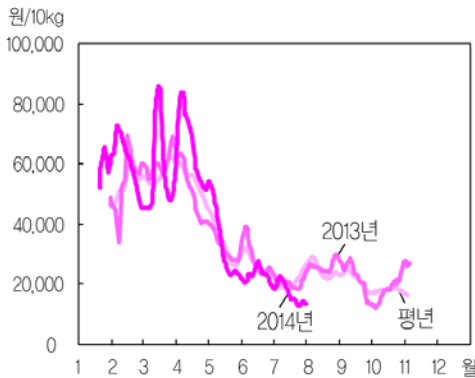
-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월 2,680원, 2월 2,394원, 3월 2,389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2,488원으로 작년 동기와 평년 동기보다 각각 14%, 13% 낮았음.
- 1/4분기 반입량은 작년의 높은 수박가격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7% 많았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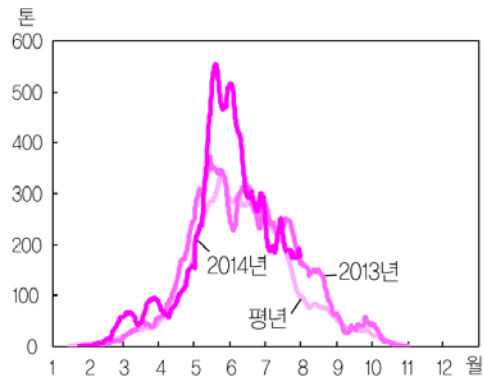
- 7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kg에 1,369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7%, 5% 낮았고, 반입량은 2,200톤으로 작년보다 10% 많았음.
- 3/4분기 수박 출하량은 작년 높은 수박가격으로 인해 타 작목에서 수박으로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5. 참외

【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참외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참외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6만 5,600원, 5월 3만 3,700원, 6월 2만 3,2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4만 8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9%, 5% 높았음.
- 2/4분기 반입량은 작년보다 17% 많았음. 이는 참외 주산지의 기상호조로 참외 작황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생육기간 단축으로 출하가 앞당겨져 5~6월 물량이 작년보다 27% 증가했기 때문임.

●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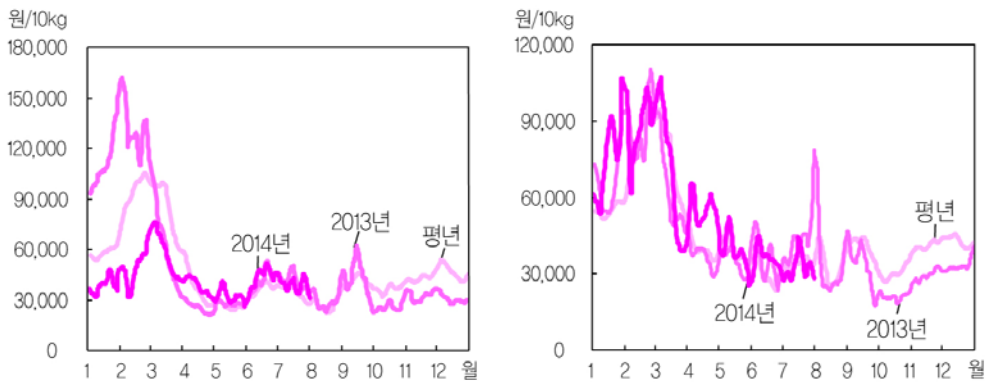
- 7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상자에 1만 6,921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7%, 18% 낮았고, 반입량은 5,400톤으로 작년보다 15% 적었음.



- 참외 3/4분기 출하량은 품질 저하와 대체과일·과채의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참외재배를 조기 종료하는 농가가 늘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5.6. 풋고추

【 청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 2/4분기 동향

- 청양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3만 8,400원, 5월 3만 1,900원, 6월 4만 3,8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3만 8,0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1%, 14% 높았음.
- 4~6월 반입량은 주산지인 영남지역의 출하면적이 확대되었고, 작황도 좋아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7%, 11% 많았음.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5만 5,600원, 5월 3만 8,800원, 6월 3만 6,5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4만 3,6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1%, 20% 높았음.
- 일반풋고추 4~6월 반입량은 영남지역에서의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14%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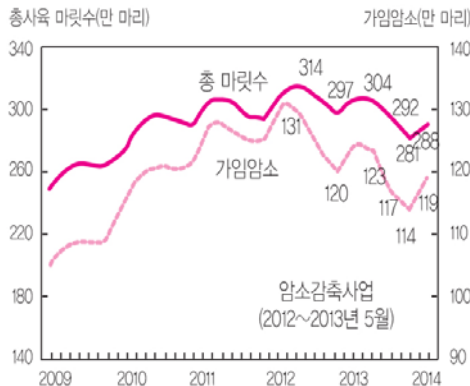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청양계꽃고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9,100원으로 작년보다 4% 낮았음. 7월 일반꽃고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2,6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3%, 4% 낮았음.
- 8월 청양꽃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8월 일반꽃고추 출하량은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양호하여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는 호남·충청지역의 정식이 본격화되는 시기인데 작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청양·일반꽃고추 정식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6. 축산<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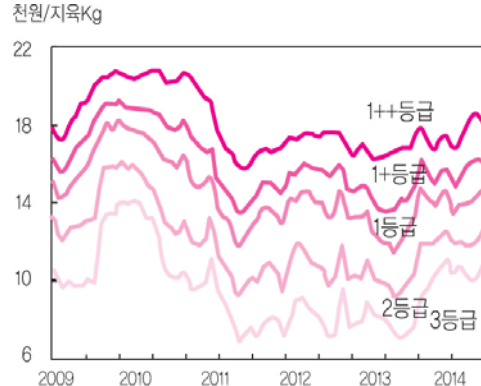
### 6.1. 한육우

【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4분기 동향

- 계절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여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월(282만 마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지인배 부연구위원(jiinbae@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원태 연구원(wtkim@krei.re.kr), 김형진 연구원(junjang00@krei.re.kr), 김진년 연구원(forever8520@krei.re.kr), 한봉희 연구원(hanbh@krei.re.kr)이 작성하였음.

리)보다 2.4% 증가한 288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306만 마리보다 6.0% 감소).

- 한우 도축감소와 대체수요 증가로 2/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4분기 13,944원/지육kg보다 1.0% 상승한 14,078원임(전년 동기 11,806원보다 19.2% 상승).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일러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4분기보다 3.7% 상승한 14,597원이었음. 암소 감축사업이 진행되었던 전년 동월 12,475원보다는 17.0% 상승하였음.
- 계절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줄고 도축이 늘어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6월 288만 마리보다 2% 감소한 283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304만 마리보다 7% 감소).
- 추석 수요 증가로 8~9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4분기보다 6~21% 상승한 15,000~17,000원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3,000~14,500원보다 15~17% 상승).

● 대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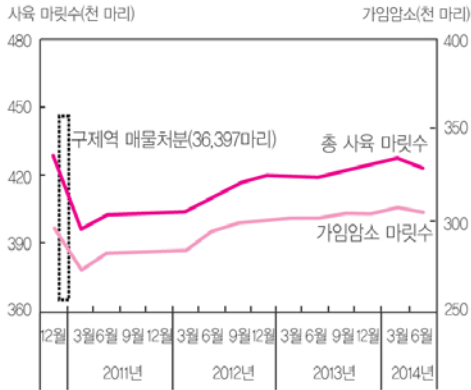
-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소비자 물가에 부담 예상
- 수급상황에 따른 한우고기 할인행사 탄력적 적용
- 한우 도매단계와 소비자가격 모니터링 강화

【 한육우 사육 마릿수 및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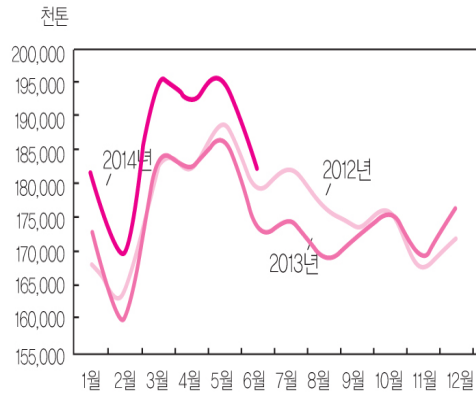
	6월(A)	9월(B)	B/A
사육 마릿수	288만 마리	283만 마리	-1.8%
1등급 가격 (지육kg)	4~6월 14,078원	8~9월 15,000~17,000원	6~21%

## 6.2. 젓소

【 사육 동향 】



【 원유 생산 동향 】



- 2/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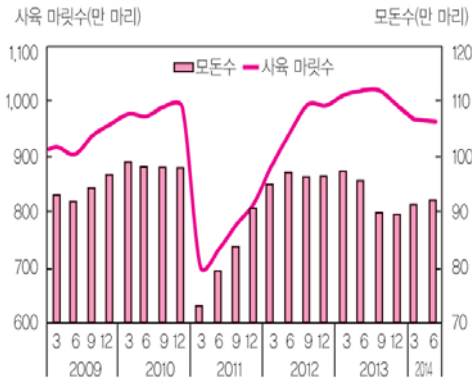
- 5월 젓소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한 42만 4천마리, 가임암소 마릿수는 1.6% 증가한 30만 6천 마리임.
- 2014년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57만 톤이었음. 한편 2/4분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0.3% 감소한 33만 2천 톤임.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2014년 3분기 보다 4.9~5.8% 증가한 54만 ~54만 5천 톤 전망

### 6.3. 돼지

【 돼지 사육 마릿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돼지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4분기 동향

- 6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3월보다 0.2% 감소한 968만 마리, 모돈수는 3월보다 1만 5천 마리 증가한 92만 5천 마리였음(통계청).
- 등급판정 마릿수가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하였고,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2/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 3,787원보다 34.1% 높고 평년 동기 4,328원보다도 17.3% 높은 탕박 1kg 기준 5,078원이었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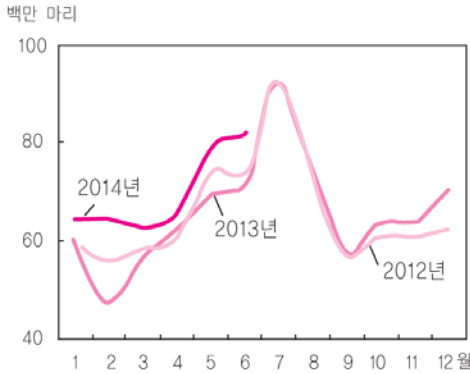
- 모돈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9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6월보다 소폭 증가한 970~980만 마리로 전망됨. 그러나 전년 동기보다는 4% 내외 감소한 수준임.
- 3/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3,993원)와 평년(4,212원)보다 높은 탕박 기준 kg당 4,7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책 방향

- FMD 확산 방지 위한 차단 방역 강화 및 철저한 백신 접종
- 추석 이후 급격한 가격 하락 방지 위한 도매시장 출하 마릿수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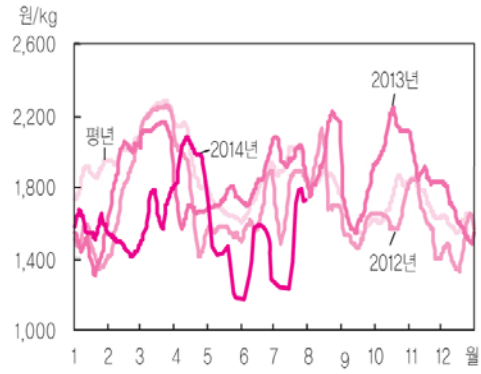
## 6.4. 육계

【 도계 마릿수 추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육계 산지가격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 ● 2/4분기 동향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인한 육용 종계 매몰처분에도 불구하고 종계 환우의 영향으로 병아리 생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함. 병아리 생산 증가로 2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억 2,602만 마리임.
- AI 발생과 여객선 침몰사고로 닭고기 수요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열업체의 냉동비축물량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 2분기는 도계 마릿수 증가와 닭고기 수요 감소로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음. 2014년 2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8% 하락한 1,593원/kg임.

###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 3분기에도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여 병아리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병아리 생산 증가로 3분기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내 닭고기 수입업체가 신규진입하면서 수입업체간 경쟁심화로 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분기 닭고기 공급 증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평균 산지가격이 전년 동기간 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4월: 1,974원/kg, 5월: 1,500~1,700원/kg, 6월: 1,600~1,800원/kg)

● 대책 방향

-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불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업계의 자율적인 감축노력이 절실한 시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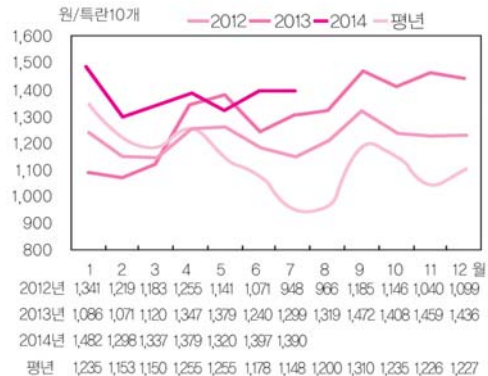
## 6.5. 산란계

【 산란계 사육현황 】



자료: 통계청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자료: 농협중앙회

● 2/4분기 동향

- 2/4분기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전년보다 12.7% 증가한 1,122만 마리였으며, 2분기 산란 노계도태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690만 마리였음.
- 부활절 이후 4~5월 노계도태 마릿수가 증가하여 계란 생산량이 감소해 2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3% 상승한 1,365원(특란 10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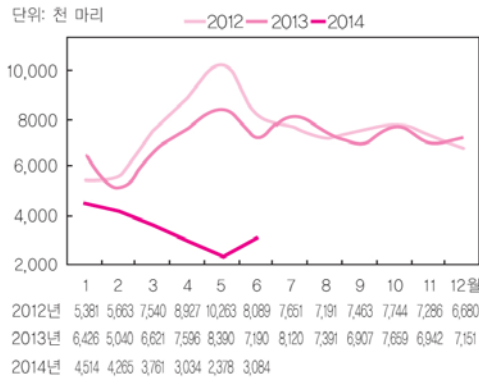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산란계 매몰 처분으로 산란용 닭 마릿수가 감소하여 계란 공급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4월 계란 산지가격은 1,383원(특란 10개)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상승함.
- 계란 공급량 감소 및 수요 증가요인 부재로 2분기 계란 산지 평균가격은 전년수준인 1,300~1,5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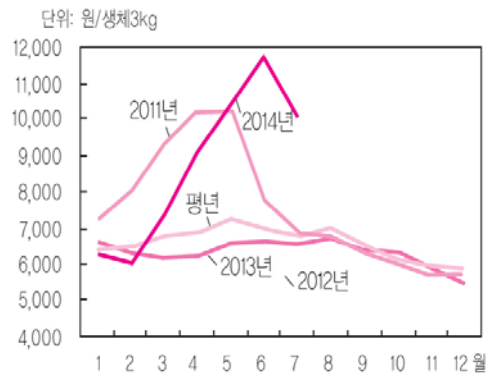
## 6.6. 오리

【 도입 마릿수 추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오리 생체가격 동향 】



자료: 한국오리협회

- 2/4분기 동향
  - 5차 HPAI 발생으로 오리 약 3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어 3월 오리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41.3% 감소한 657만 마리, 6월은 54.2% 감소한 609만 마리였음 (통계청).
  - 종오리 살처분 영향으로 2분기 도입 마릿수 전년대비 63.3% 감소한 850만 마리였음.
  - 오리 도입 마릿수 감소로 오리 생체(3kg)가격 전년 동기 대비 60.3% 상승한 10,369원이었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5, 6월 육용오리 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53.2% 감소한 5만 3천 톤이었음.
  - 7월 이후 오리고기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3분기는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임. 계절적인 요인 외 추가적인 변동 요인이 없어 수요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오리 고기 공급 감소 예상되어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3분기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7,000~7,500원/3kg으로 전망됨.





# 특별주제

- ① 고랭지배추 면적 변동요인과 전망
- 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와 발전방안



## 【특별 주제 1】

## 고랭지배추 면적 변동요인과 전망\*

김태훈\*\*, 박지연\*\*\*, 박영구\*\*\*\*

## 1. 고랭지배추 재배동향 및 특징

## 1.1. 고랭지배추 생육주기 및 특성

- 고랭지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저온성 채소로서 육묘적은 20~25°C, 생육 적온은 15~20, 결구적온은 15~16임. 생육 초기에는 고온에 잘 견디는 편이나, 결구기에는 내고온성이 약해 바이러스에 취약함.
- 고랭지배추의 생육기간은 정식으로부터 60일 내외로 해발 400~600m인 준고랭지, 600m 이상의 완전고랭지배추로 구분함.
- 준고랭지배추의 정식은 1기작이 6월 중순에 정식하여 7월 하순부터 수확되며 2기작 배추는 7월 상순에 정식하여 9월 하순부터 수확됨.

## 【 고랭지배추 생육 주기 】

구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준고랭지	5월 하~7월 상	6월 중~7월 하	7월 하~9월 하
완전고랭지	6월 상~6월 중	6월 하~7월 중	9월 상~10월 중

자료: 농촌진흥청.

\* 본고는「고랭지 채소면적 변동요인과 전망」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taehu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jiyun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ygpark@krei.re.kr)

- 고랭지배추는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 작형으로 정식기 기온과 강수량, 생육시기 장마 및 태풍의 영향이 큼. 또한 습해와 병충해에 매우 취약한 편임. 태풍과 집중 호우가 발생할 경우, 생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포전 자체가 유실되는 경우도 많음.

## 1.2.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동향

- 우리나라 배추 재배면적은 1993년 54,686ha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0년 이전까지 등락을 반복하며 4~5만ha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2000년 51,801ha 이후 재배면적은 감소추세로 전환, 2013년 28,301ha까지 줄어듦.
- 고랭지배추 역시 전체 배추 재배면적 변동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1996년 10,793ha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1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 2000년 이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연평균 5% 감소하여 전체 배추 재배면적(연평균 4.4% 감소)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 지역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을 보면 2013년 강원도가 5,099ha로 전체면적의 92.7%를 차지하고 있음. 충북은 2000년 중반까지 일부 재배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음.
- 2004년까지 1,000ha 수준을 유지하던 전북은 2013년에 195ha까지 감소하면서 고랭지배추는 강원지역으로 집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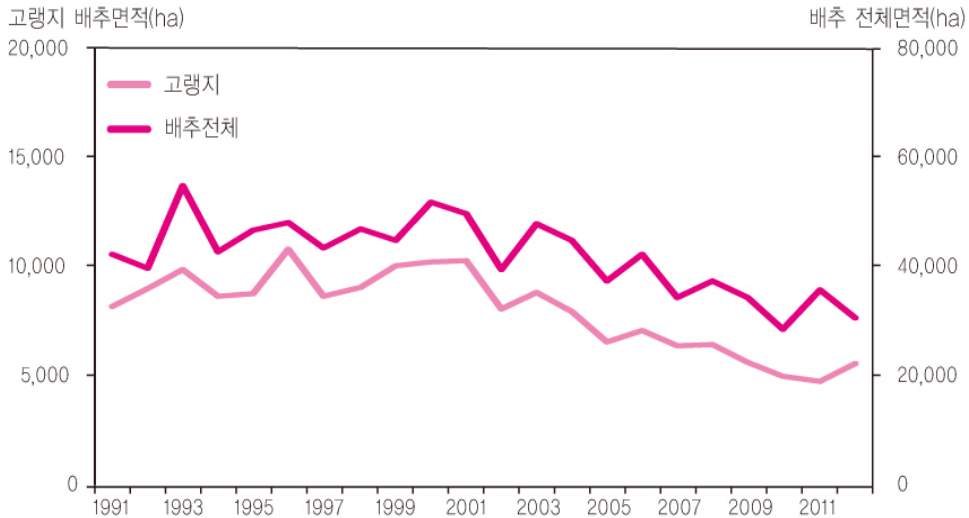
### 【 지역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

단위: ha

	전체 배추면적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전국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2000	51,801	10,206	7,461	81	1,604	584	476
2005	37,203	6,502	5,107	30	578	415	372
2010	28,270	4,929	4,447	0	220	123	139
2013	23,301	5,498	5,099	0	195	130	74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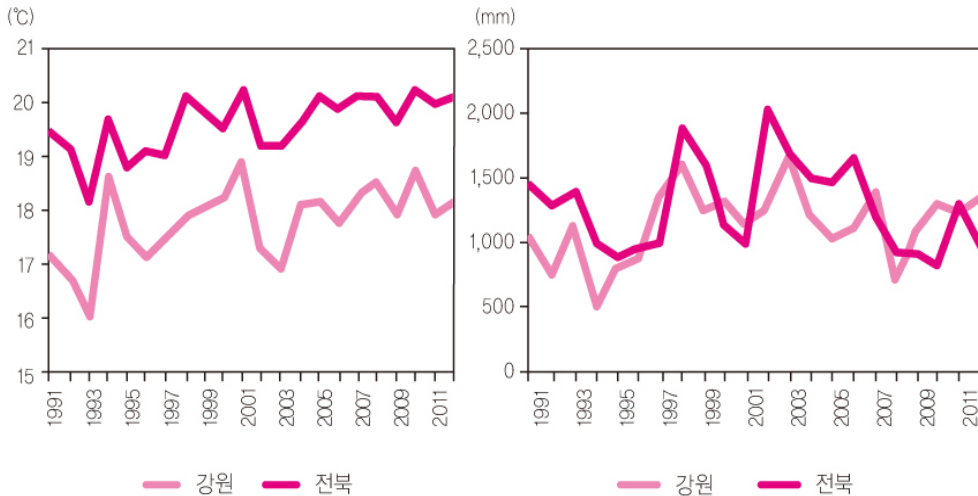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 2.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 요인

### 2.1. 기상변화에 따른 상품성 저하

- 최근 기상변화에 따른 단수의 변동성 확대가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 감소 요인이 되는지 분석하였음.
- 고랭지배추 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여 단수함수를 추정한 결과, 정식기인 6월 기온과 강수량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고랭지배추 단수는 6월 평균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함. 6월의 강수량 증가와 저온피해는 단수감소의 요인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2011~2012년) 고랭지지대의 연평균기온은 19.2°C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평균기온인 17.9°C보다 1.3°C 상승하였고, 최고기온은 동기간 23.9°C에서 25.1°C로 1.2°C 상승함.

【 고랭지 지역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5~10월) 】



자료: 기상청.

【 평균기온과 고랭지배추 단수 】

단위: °C, kg/1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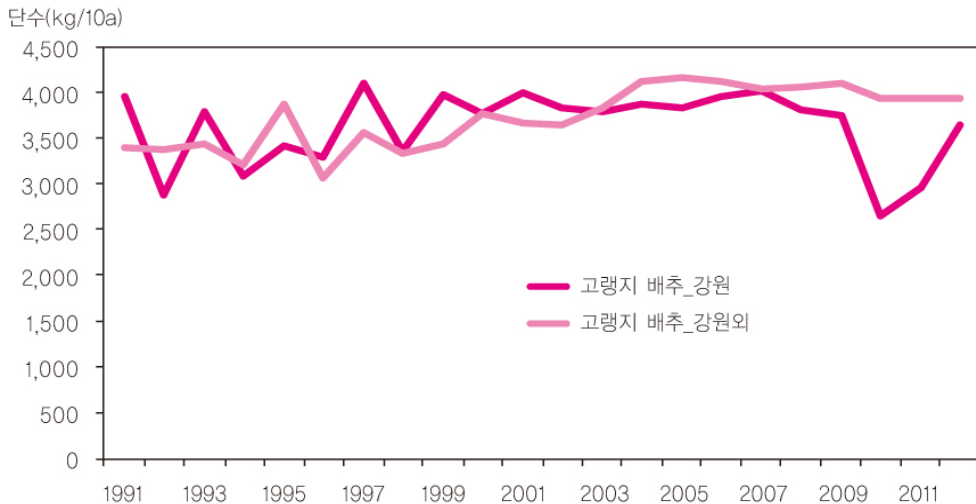
	평균기온(5~10월)				고랭지배추 단수			
	강원	전북	경북	경남	강원	전북	경북	경남
1991~1993(A)	16.7	18.9	17.4	18.6	3,544	3,407	3,742	3,150
2011~2012(B)	18.3	20.1	18.4	20.2	3,089	3,806	3,916	4,416
B-A	1.6	1.2	1.0	1.5	-455	399	175	1,267

자료: 기상청, 통계청.

- 최근의 강수량 증가와 저온현상이 1990년 초반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기온 상승과 재배기술발전에 따라 고랭지배추 단수는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과거 고랭지배추 단수변동 추이를 살펴봐도 집중호우로 단수가 급감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단수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단수감소 혹은 변동성 확대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고랭지배추 지역별 단수변동 추이 】



자료: 통계청, KOSIS 데이터 베이스.

- 하지만 기온상승으로 인한 배추의 상품성 저하는 2000년 이후 고랭지배추 재배 면적 감소의 요인으로 판단됨.
- 특히, 상품성 저하 문제는 강원지역보다 전북을 비롯한 남부지역 고랭지배추 재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평균기온의 상승은 강원을 포함한 전 고랭지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그러나 강원지역은 타 지역보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기온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타 지역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상품성 저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온 상승으로 고랭지배추 재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강원지역과 달리 남부지역에서는 노지에서 저장기간이 길지 못한 단점이 있음. 또한 기온 상승은 배추 무게를 늘리는 장점이 있었으나 무름병 등 병해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배추의 상품성 저하로 인해 강원도와 타지역 고랭지배추 농가수취 단가가 역전되었음. 1990년대 초반에 고랭지배추 단가는 전북이 강원도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 초반에는 강원도의 단가가 더 높게 나타났음.

- 소득률 역시 1990년 초반에는 전북과 경북이 강원도 보다 높았으나, 2010년 초반에는 강원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락하였음.
- 연도별 10a당 조수입(주산물가액 기준) 또한 2000년까지 강원과 전북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부터는 강원지역의 조수입이 전북보다 높았고 격차도 심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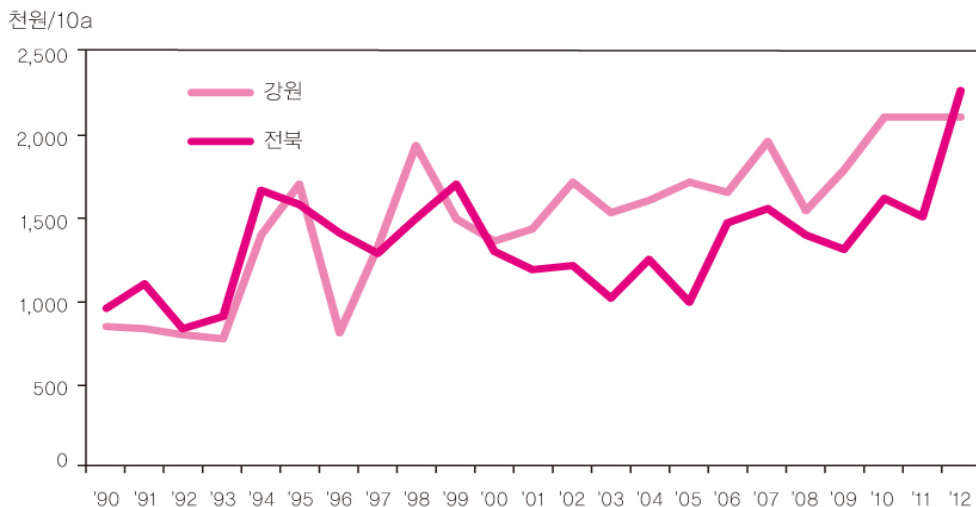
【 지역별 고랭지배추 수취단가 및 소득률 】

단위: 원/kg, %

구분	수취단가(원/kg)			소득률(%)		
	강원	전북	경북	강원	전북	경북
1991~1993(A)	174	244	208	65.2	72.9	72.5
2010~2012(B)	483	368	272	58.3	54.3	53.1
C=B-A	309	124	65	-6.9	-18.6	-19.4
C/A×100	178	51	31	-11	-26	-27

자료: 농촌진흥청.

【 지역별 고랭지배추 주산물 가액 비교 】



자료: 농촌진흥청.

- 따라서 이상기온이 단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온상승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가 남부지역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이로 인해 고랭지배추의 강원도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강원도의 재배면적 비중은 1991년 72.8%에서 2013년 92.7%로 높아짐.

## 2.2. 생산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 1990년 이후 고랭지배추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음. 10a당 실질경영비는 1991년 40만 5천원에서 2012년 83만 8천원으로 연평균 3.5% 상승하였으며 명목으로는 6.8%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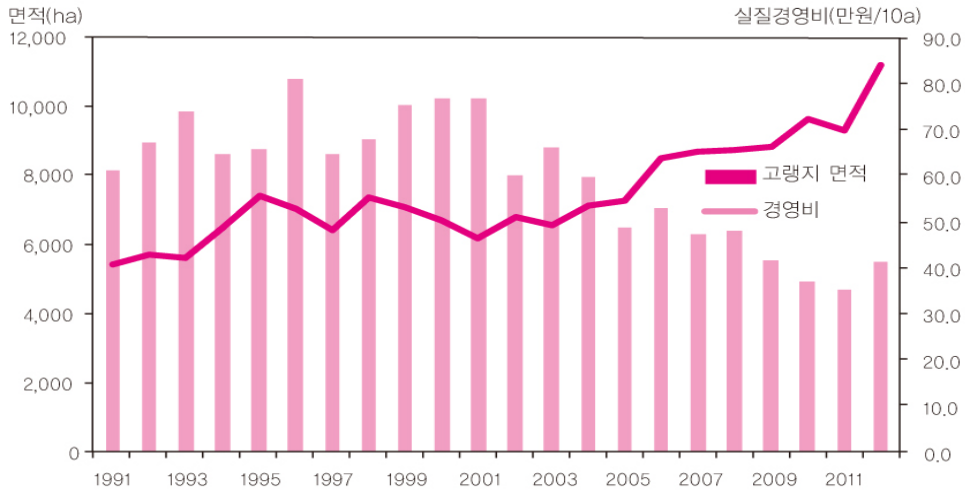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및 소득 변화 추이 】

	1991	2000	2012	연평균 변화율(%)		
				1991~2000	2000~2012	1991~2012
면적(ha)	8,163	10,206	5,495	2.5	-5.2	-1.9
실질경영비 (만원/10a)	40.5	50.4	83.8	2.4	4.2	3.5
실질소득 (만원)	128.7	87.7	103.4	-4.3	1.4	-1.0
소득률(%)	76	63.5	55.2	-2.0	-1.2	-1.5

자료: 농촌진흥청.

- 실질경영비는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었던 1990년대 연평균 2.4% 상승하였으나 재배면적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2000년 이후는 연평균 4.2%의 빠른 상승세를 보임.
-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는 경영비 상승 및 수익성 악화와 관련이 있음.
- 1991년에서 2012년까지 실질경영비와 재배면적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0.7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비 상승이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과 실질경영비 변화추이 】



자료: 통계청, 농촌진흥청.

- 재배면적이 증가한 1990년대에는 경영비와 재배면적 간에 0.66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2000년 이후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상관계수가 -0.82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재배면적과 소득률은 분석기간 동안(1991~2012년) 0.71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면적 증가시기와 감소시기의 상관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음. 면적이 증가하던 1990년대에는 -0.05, 2000년 이후 면적이 감소하던 시기에는 0.76의 상관관계를 보임.
- 1990년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평균 소득률이 70%로 타 품목에 비해 높아 소득률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반면, 2000년 이후 평균 소득률은 59%로 낮아져 재배면적 변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고랭지배추 재배는 소득률이 일정수준 보다 낮아지면서 작물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익성 악화는 2000년 이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 요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됨.

【 고랭지배추 면적과 경영비, 소득률의 상관계수 】

	재배면적		
	면적증가기 (1991~2000)	면적감소기 (2000~2012)	전체기간 (1991~2012)
실질경영비(t-1)	0.66** (2.51)	-0.82*** (-4.71)	-0.70*** (-4.38)
소득률(t-1)	-0.05 (0.14)	0.76*** (3.86)	0.71*** (4.51)

주: ( )안의 숫자는 t-1값이며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농촌진흥청.

### 2.3. 상대수익성 변환에 따른 타작목 전환

- 2000년 이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는 경영비 상승과 자체 소득률 저하뿐만 아니라 타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지역별 상세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강원지역 고랭지 주산지(시, 군)의 품목별 면적 변화로부터 타작목 전환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준고랭지 재배지역(해발 400m 이상)으로 분류되는 강릉, 태백, 평창, 정선의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미곡과 맥류를 제외한 이 지역의 2011년 전체 재배면적은 1만 5천ha로 2000년(1만 8,400ha) 대비 6,300ha 감소하였음.
- 감소된 면적 중에는 서류(2,000ha), 배추(1,180ha), 고추(810ha) 등의 감소폭이 컸으며, 증가된 품목은 두류(430ha), 호박(110ha), 파(100ha), 토마토(50ha) 등이었음.
- 재배면적이 감소한 품목은 증가한 품목보다 2000년 이후 조수입 증가율이 낮았음. 특히 배추의 경우 2012년 조수입은 2000년 대비 56%(명목) 상승에 그쳐 엽채류 중 재배면적 감소폭이 가장 컸음.

【 강원 고랭지지대 농산물 재배면적 변동 】

단위: ha, %

		2000(A)	2012(B)	증감면적 (B-A)	증감률
증가품목	두류	1,949	2,379	430	22.1
	호박	25	133	108	432.0
	과	154	253	101	64.8
	토마토	16	63	47	293.8
	마늘	96	138	42	43.8
	딸기	10	25	15	150.0
	오이	23	26	3	13.0
	계	2,273	3,017	745	32.8
감소품목	서류	5,379	3,366	-2,013	-37.4
	배추	5,937	4,756	-1,181	-19.9
	고추	1,662	849	-813	-48.9
	무	2,000	1,444	-556	-27.8
	특용작물	1,110	598	-512	-46.1
	기타	1,975	774	-1,201	-39.2
	계	18,391	12,059	-6,332	-34.4

주: 강원지역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정선, 평창, 강릉, 태백의 행정자료임.  
자료: 정선, 평창, 강릉, 태백시(군)청 통계연보.

- 재배면적이 증가한 오이, 토마토 등은 동기간 조수입 증가율이 배추나 무보다 높게 나타났음. 또한 오이, 토마토의 단위면적당 조수입도 고랭지배추에 비해 5~6배 높은 수준임.
- 통계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전체 고랭지 재배면적 변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으나 배추 재배면적이 이들 작목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고랭지지역 품목별 조수입 비교 】

단위: 천원/1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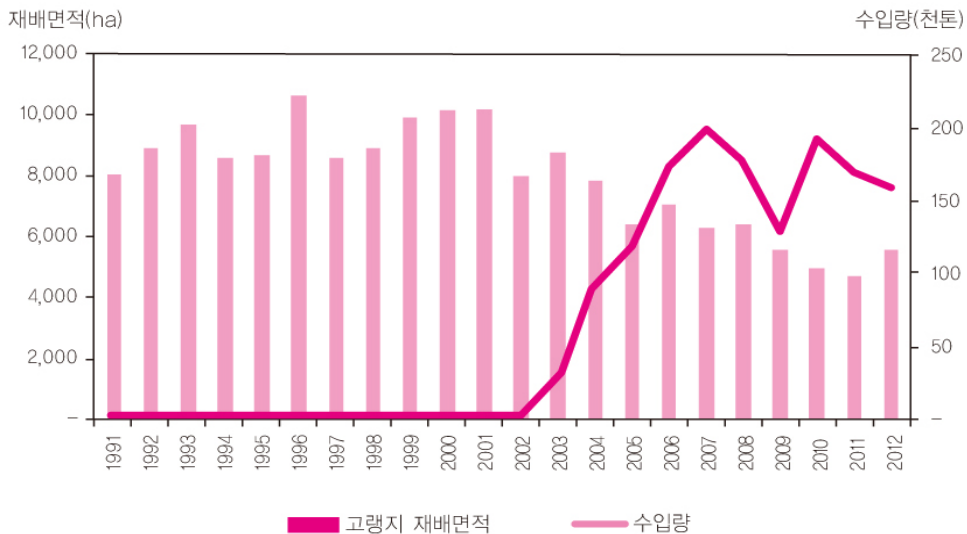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고랭지감자	오이	토마토
2000	1,357	1,176	1,124	4,758	5,733
2011	2,113	2,243	2,009	10,807	11,395
증감률(%)	55.7	90.7	78.7	127.1	98.8

자료: 농촌진흥청.

## 2.4. 김치 수입과 수급정책의 영향 분석

- 배추와 김치의 수입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03년 이전에는 수입이 지속적이지 않고 물량도 미미하였음. 본격적으로 수입이 시작된 것은 2003년부터라고 할 수 있음.
- 1990년대의 배추 및 김치 수입량은 대부분 100톤 미만이었으나, 2003년 배추 수입은 약 1만 톤, 김치 수입은 약 3만 톤으로 전년(2002년)대비 각각 3배, 5배 증가하였음.
- 배추 수입은 물량이 많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김치 수입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약 22만 톤이 수입되었음. 이를 신선배추로 환산할 경우 50만 톤 수준으로 국내 생산량(약 200만 톤)의 25%에 이룸.
-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된 김치의 월별 수입량 비중을 보면 고랭지배추가 출하되는 7~10월에 수입되는 비중은 40%로 월동배추(1~4월, 28%), 봄배추(5~6월, 16%), 가을배추(11~12월, 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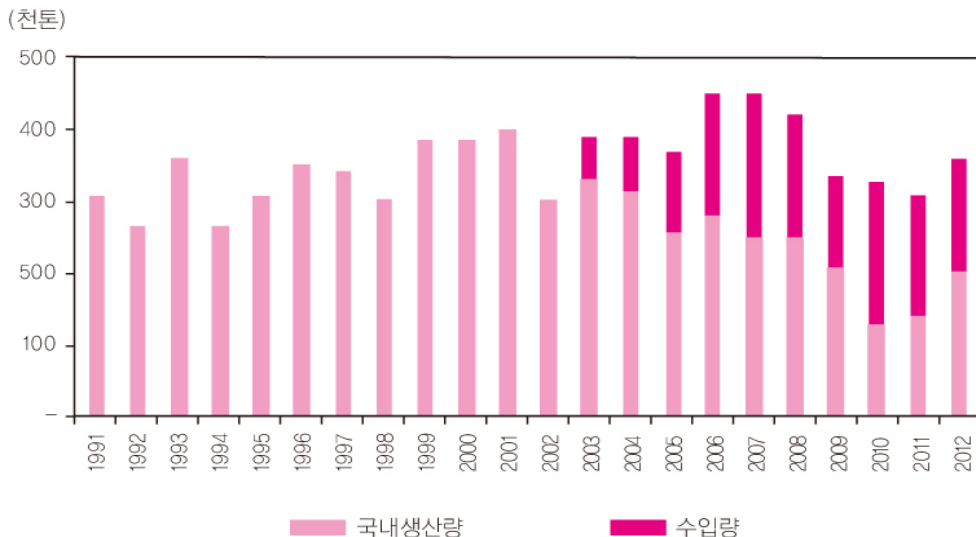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및 김치수입량(7~10월) 】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 고랭지배추 출하시기의 김치 수입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나, 이것이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음.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수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3년 이전인 2001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수입량이 증가하여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과 생산 감소가 수입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1991년 이후의 고랭지배추 공급량을 분석해 보면 2001년 이후 재배면적 감소로 국내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김치수입이 국내 생산 감소분을 대체하여 전체 공급량은 면적 감소 이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고랭지배추 재배면적과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을 수입김치가 제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2000년대 들어 재배면적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랭지배추 도매가격의 급등현상은 기상이변이 발생한 2010년을 제외하고 없었음.

【 고랭지배추 생산량 및 김치수입량(변환)(7~10월) 】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 고랭지배추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에서는 매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배추 역시 시장가격을 위험, 경계, 주의 단계 등으로 설정하여 가격 상승 시에는 재고방출이나 일시적 수입, 하락 시에는 산지 폐기 및 다양한 수요 창출 노력을 하고 있음.
- 고랭지배추는 재배특성상 포전거래 등을 통한 투기적 재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농업관측, 재고 조절 등 정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정책으로 투기적 기대수익이 낮아진 것도 재배면적이 감소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3. 요약 및 시사점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1990년대에는 소폭 증가 추세였으나 2000년대 들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전체 배추 재배면적 변동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 감소율이 더 큼.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의 감소요인으로 기상이변, 수익성 악화, 김치수입증가 등이 제기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지만 2010년을 제외하고 고랭지배추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우는 많지 않음.
- 2010년을 제외하고 고랭지배추 단수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며, 기온상승 역시 고랭지배추 재배가 불가능할만큼 상승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기온상승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로 남부지역 고랭지배추의 농가수취단가는 강원지역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이로 인해 전북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율이 훨씬 크게 나타났음.

- 또한 고랭지배추의 경영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도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2000년 이후 실질경영비의 상승과 재배면적 감소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률 또한 1990년 평균 70%수준에서 2000년 이후 평균 59%로 낮아져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타작목과 고랭지배추의 상대수익성 변화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의 또 다른 요인임. 강원도의 고랭지배추 주요 산지인 4개 시군의 면적변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추를 비롯한 고추, 서류 등의 면적은 감소하였으며 두류, 호박, 파, 토마토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랭지배추 재배시기와 중복이 되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품목들의 조수입 변동을 보면 오이, 토마토 등의 조수입 증가율(2000년 대비 2011년)이 배추나 무보다 높았음. 따라서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오이, 토마토 등 상대수익성이 좋은 품목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일부에서 김치 수입증가가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를 유발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재배면적이 감소한 후 김치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음. 김치수입이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여름철 김치수요에서 고랭지배추 생산 감소부분을 수입김치가 대체해 주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면적과 생산감소로 가격이 상승할 요인을 수입김치가 제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고랭지배추는 재배특성상 포전거래 등을 통한 투기적 재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관측, 재고 조절 등 정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정책으로 가격변동성이 작아졌음. 따라서 정부의 수급안정정책 또한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의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당분간 감소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강원지역 준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들어 과거에 비해 감소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들 지역의 재배면적이 일정정도 감소한 후 전체 고랭지 재배면적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 기온상승으로 인한 품질하락과 그에 따른 단가 및 소득률 감소로 인하여 남부 지역의 고랭지배추 면적은 이미 크게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 강원지역의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준고랭지 위주로 수익성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완전고랭지 지대는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여름철 김치나 배추수입과 정부의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으로 향후 고랭지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타 작물과의 상대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4. 참고 문헌

- 김명환 등. 2008.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and Livestock Quarterly Model」. M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연중 등. 2006. 「배추 계절별 수급모형 개발」. W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지연, 박영구. 2013. 「배추·무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M1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선두원 등. 2012. “한우의 경락가격에 대한 요인변 기여도 분석.”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54(2): 77-82.
- 이용선, 심송보. 2006. 「농업관측 품목모형 KREI-COMO 2005 개발 운용」. W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석호 등. 2010. 「중기선행관측 기본모형 개발연구」. M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관세청.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농촌진흥청. <[www.rda.go.kr](http://www.rda.go.kr)>.
- 기상청. <[www.kma.go.kr](http://www.kma.go.kr)>.
- 통계청(KOSIS). <[kosis.kr](http://kosis.kr)>.

## 【특별 주제 2】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와 발전방안\*

최병옥\*\*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서 직거래 등 대안 유통채널을 확산시킬 것을 발표하였으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에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정의한 직거래는 산지 및 소비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대량거래를 전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직거래는 영세소농이 생산하는 소량의 농산물을 유통단계와 비용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농산물 유통환경이 소비지 유통업체 주도로 재편되면서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산지유통조직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거래단위의 대형화를 이루어 직거래를 추진하였음. 그러나 최근의 농산물 직거래는 소량의 농산물 거래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요구하고 있음.
  -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영세소농의 판로 및 안정적 소득 확보
  -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
  -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등장

\* 본고는 「소비자·생산자 상생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2013. 8)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bochoi@krei.re.kr)

- 직거래 관련 정부지원 사업의 확대
- 최근 농산물 직거래 관련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직거래장터 판매부류에 가공식품 포함 여부
  - 직거래장터 참여 주체와 수입농산물 취급 여부
  - 소비자단체(한살림, 생협, 아이쿱 등)의 직거래 포함 여부
  -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직거래 매장 운영 여부
  - 농산물 직거래 관련 정책 지원 범위
  -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관련법 충돌
- 정부는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직거래 등 대안 유통채널을 확산시킬 것을 발표하였음.
  - 2012년 직거래 비중은 전체 유통경로에서 약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거래가 경로를 단기간에 확산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 2016년까지 10% 내외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정부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사업, 온라인 직거래 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방식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3년 223억 원의 예산을 배분하였음.
- 한편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에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은 직거래장터 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다양한 법률이 검토되고 타 법령 등의 예외규정을 통하여 추진될 예정임.
  -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정·금융 인센티브 확대를 밝히고 있으며 새롭고 창의적인 직거래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제시된 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되는 반면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하여 직거래의 본원적 개념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음.

- 2000년대 이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가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자 조직 및 산지 유통조직의 조직화·규모화가 진전되고 다양한 기법의 마케팅 방식이 도입되면서 직거래 개념이 모호해지게 되었음.
- 농산물 직거래 관련 기존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연구에서는 직거래를 “별도의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로 규정하여 왔음. 그러나 농산물 직거래 개념 분류에서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적 개념과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왔음.
- 농산물 직거래 관련 정부 정책사업 시행이 발표된 이후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주체는 협의적 개념의 직거래뿐만 아니라 광의적 개념의 직거래도 정책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1.2. 연구의 목적

- 기존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정의한 직거래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고 최근 논의되는 직거래 관련 주요 이슈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직거래 활성화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직거래 개념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직거래 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작업임.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유통업체의 농산물 판매와 매입방식이 다양화되었음.
  - 농산물 직거래 개념을 확립하지 않고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경우에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일치되지 못하여 대안유통 확산 및 유통효율성 향상에 한계를 보일 수 있음.
- 정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칭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거래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많은 이슈가 등장하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및 생산 및

판매주체의 규모화·조직화가 진전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판단됨.

- 그러므로 이 연구는 직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슈별 문제점 파악을 바탕으로 직거래 활성화 법률의 기본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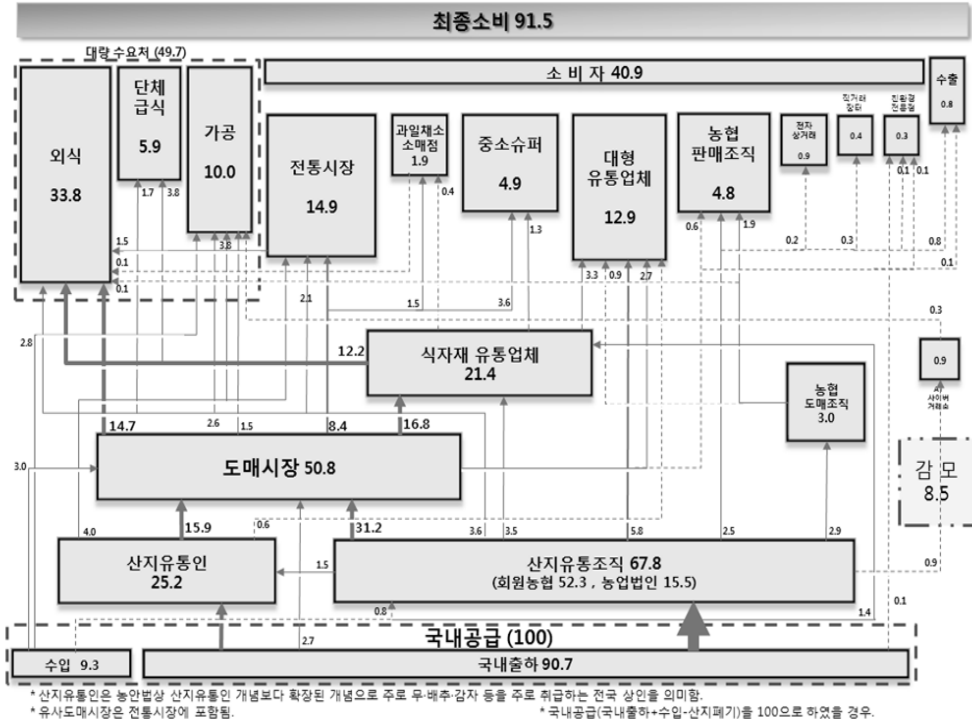
## 2.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직거래 개념 및 유형

### 2.1.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 2000년대 이후 소비자 유통업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농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광역적 개념의 직거래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한 생산자 단체의 출하가 증가하고 있음.
  - 과거 생산자의 개별 출하가 많을 때는 생산자가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직거래 등을 통하여 판매활동을 해왔음.
- 그러나 소비자 유통업체가 규모화 되면서 산지유통의 출하체계가 생산자 개별 출하에서 농협의 산지유통시설(APC)을 경유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신선채과물 유통경로별 출하비중에 따르면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조직의 취급물량이 67.8%로 나타나 산지출하단계의 조직화·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비자 유통업체도 대량수요처, 식자재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도매 및 소매 단계의 취급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신선청과물 유통경로별 출하 비중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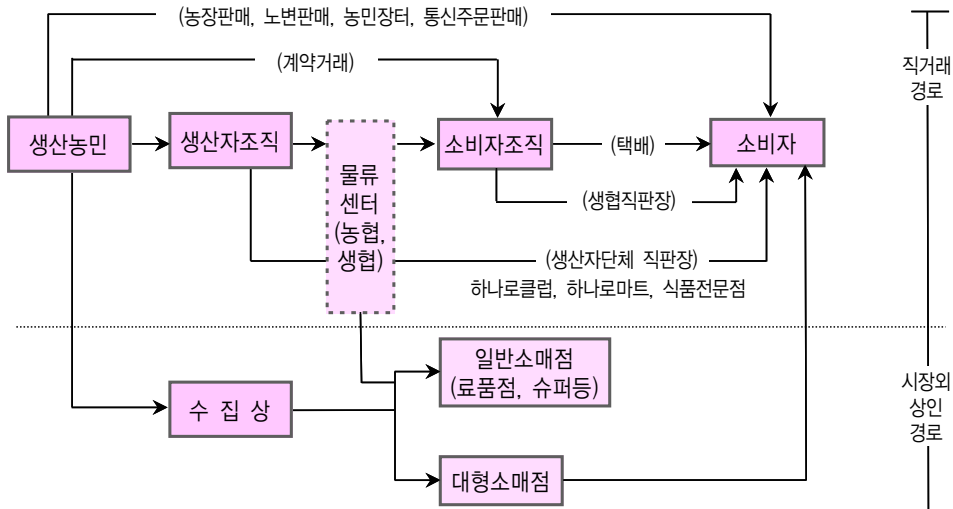
자료: 박하나(2012), 신선청과물 유통규모 및 유통경로 추정,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2. 농산물 직거래 개념과 유형

- 직거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와 거래할 때 중간상인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거래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유통경로에 포함되기도 함.
  - 직거래의 협의적 개념은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지 직매장, 농장직판, 노변판매, 농민장터, 통신주문 판매 등이 포함됨.
  - 광의의 개념인 직거래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 직판장, 전문매장, 소비자단체인 생활협동조합 운영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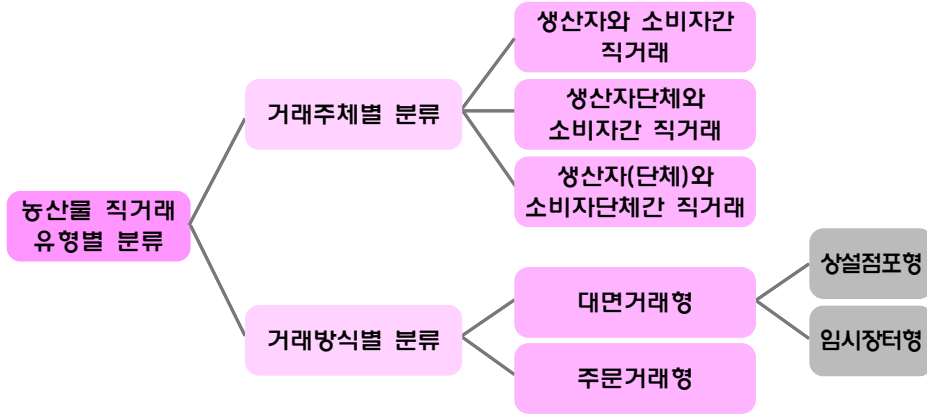
## 【 시장 외 유통경로에서의 직거래 형태 】



자료: 김명환 외(1998),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직거래의 협의적·광의적 개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10~12%(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7%, 생산자단체의 소비지판매 3~5%) 정도가 직거래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됨.
- 시장 외 유통경로에서 직거래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와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단체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에는 농장판매, 노변판매, 직거래장터, 통신주문 판매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생산자가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단체를 경유할 때는 산지 APC를 통하여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 회원 등에게 공급되는 형태임.
- 농산물 직거래의 유형은 거래주체와 거래방식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판매형태가 존재함.
  - 농산물 직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거래주체별 분류와 거래방식별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산물 직거래 유형별 분류 】



자료: 김명환 외(1998),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산물 직거래 유형별 판매는 직거래장터, 직매장, 통신판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직거래장터, 농장 판매, 주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짐.
  - 생산자가 생협 등의 공동체에 출하할 경우 생협 매장 또는 자매결연 단체에 공급되는 방식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짐.
  - 생산자가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에 판매할 경우 상설판매점, 임시판매장터, 주문판매 방식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짐.
- 농산물 직거래 개념과 유형은 농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직거래 본연의 목적인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 수취가격 증대,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농산물 유통환경이 소비자 유통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산지유통조직의 소비자 대응이 규모화·조직화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유통방식이 등장함.
  -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 수취가격 증대, 유통단계 절감,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통단계가 1~2단계로 국한될 수 있어야 함.

## 【 농산물 직거래 유형별 판매형태 】



### 2.3. 농산물 직거래 관련 주요 현안

#### 2.3.1. 직거래장터 판매부류에 가공식품 포함 여부

- 최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면서 직거래장터 판매부류에 가공식품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농가 소득확보 차원에서 일반 농산물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주 및 과실주, 김치, 두부 등의 단순 가공식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가공식품은 가공 정도에 따라 단순가공 식품과 공산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형태가 출시되고 있음.
  -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에 관련된 안전성 관리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안전성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
-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원산지표시법에 해당되고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해당됨.
  -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여야 함.

-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영업허가를 받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해야하며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의 규정이 있음.
- 현행법 체계에서는 직거래장터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할 때는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식품을 위생적으로 판매할 경우 허용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농민장터, 직매장에서도 농산물 이외에 치즈, 잼, 빵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이 판매되고 있음.
  - 미국의 직거래장터는 해당 주에서 개설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직거래장터에서 가공식품 판매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축산물 이동식 차량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 수단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정책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약 5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2012년 723개로 크게 확대되었음. 이 중 상당수가 가공식품을 생산하면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사업은 안전행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87개의 마을기업이 설립되어 매출액 494억 원을 달성하고 6,550개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전북 완주군 용진면 도개마을의 김치 및 두부, 강원 양구군 동면 원당리의 전통장, 강원도 인제군 용대 2리의 황태 및 마가복 등이 있음.
- 직거래장터에서 가공식품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현행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과정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고 직거래장터 개설자가 운영 및 판매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함.
  - 정부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단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법인 및 기업을 육성하여 왔음.
  - 사회적 기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이들

이 직거래장터, 직매장, 인터넷 판매에 참여하게 된다면 1단계의 유통과정이기 때문에 직거래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음.

- 다만, 단순 가공식품이 직거래장터, 직매장,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하여 판매될 때 식품 안전성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주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 2.3.2. 직거래장터 참여 주체와 수입농산물 취급 여부

- 최근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가 참여하고 수입농산물도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직거래장터의 근본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여 유통단계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자 수취가격 증대,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를 도모하는 것임.
  - 그러나 최근 직거래장터의 참여 범위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국한할 경우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기 때문에 직거래장터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가 포함되고 수입농산물도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직거래의 협의적 개념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하며 광의적 개념은 생산자 단체의 계통출하 체계를 의미함.
  - 수입농산물의 경우 유통구조가 외국의 생산자→외국 무역업체→국내 수입업체, 대리점, 대형유통업체→도매시장 또는 소비자→소비자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직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수입농산물이 직거래장터에 판매될 경우 시중 판매가격보다 아무리 저가에 판매된다고 할지라도 직거래 및 직거래장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주체도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유통단계 및 유통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거래장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미국에서는 농민시장의 약 67%에 달하는 장터들이 생산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은 농민시장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농민시장에서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판매하고자 하는 유통업자는 각 장터 개설권자 및 운영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장터 개설권자 및 운영자는 유통업자의 참여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함.
- 또한 농민장터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경우 카운티 등의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거리(100마일 등)를 기반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판매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직거래장터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 소비자 이익 증대의 목표 이외에도 로컬푸드 확대, 자급률 향상,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의 공간 등의 부가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유통업자 참여 및 수입농산물 취급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2.3.3. 소비자 단체(한살림, 생협, 아이쿱 등)의 직거래 포함 여부

- 한살림, 생협, 아이쿱 등은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공동체 또는 소비자 단체에 포함됨.
- 한살림, 생협, 아이쿱 등은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판매방식은 소비자 회원을 대상으로 꾸러미 사업, 전문매장, 인터넷 판매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 개념을 협의로 판단할 경우 한살림과 같은 소비자 단체는 생산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대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직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 농산물 직거래를 광의로 판단할 때에는 소비자 단체의 계통출하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직거래에 포함됨.
- 그러나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생산자가 직거래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한살림, 생협, 아이쿱 등이 다양한 판매방식을 활용하여 직거래를 대행하고 있음.

- 소비자단체는 생산자에게 직거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1차적인 유통단계가 발생하므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미국은 농민조합의 경우 직거래장터에 따라서 지역 특성 및 취급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자로 간주하거나 유통업체로 간주하고 있음.
-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판매활동은 판매방식에 따라 직거래 포함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단체가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전문매장 판매, 꾸러미 사업, 인터넷 판매 등의 직거래 사업을 실시할 때는 직거래에 해당하지만 대형유통업체 납품, 도매시장 출하 등은 직거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 소비자단체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거래와 직거래가 아닌 일반 판매가 구분되어야 함.

#### 2.3.4.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직거래 매장 운영 여부

- 농산물 직거래 관련 활성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대형유통업체 등은 Shop-in-Shop 개념으로 판매장 내부에 직거래 매장을 운영하려고 함.
  - 대형유통업체가 매장 내 특정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지금까지 소비자 유통업체 중 Shop-in-Shop 개념의 직거래 매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 이외에 실시하지 않았음.
-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생산자 단체 등이 매대를 임대하여 직접 판매하는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 매장은 생산자 단체 등이 농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정해진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 매장은 생산자 단체 등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의 직거래에 해당되지만 생산자 단체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 소비자 구매비용 절감 등에는 기여하지 못함.

- 농협 하나로 마트의 Shop-in-Shop은 인근 지역의 생산자가 직접 매대를 관리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농협 하나로 마트의 Shop-in-Shop을 활용하는 생산자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 적정수준의 매장 관리비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당일수확한 농산물을 당일 판매하고 판매가격도 농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가 매장 내 Shop-in-Shop 형태로 직거래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존 수수료 매장과 같이 생산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판매가격 인하 요구, 납품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직거래로 취급될 수 없으며 농협의 하나로 마트 Shop-in-Shop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직거래 매장을 운영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홍보 및 사회적 기여에 해당되므로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

### 2.3.5. 농산물 직거래 관련 정책 지원 범위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광의적 개념의 직거래 단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직거래를 협의적 개념으로 판단할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거래 형태이지만 광의적 개념의 직거래는 생산자 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등이 다양한 판매방식을 활용하여 생산자의 판매를 대행하는 것임.
- 정부가 직거래 사업 지원 대상을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법안을 추진하거나 지원 대상을 결정할 경우 법률적·정책적 형평성에 따라 수많은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직거래가 정책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2.3.6.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농산물 직거래 구입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하여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있음.
-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득공제율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함.

### 2.3.7.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관련법 충돌<sup>1)</sup>

-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거래장터를 개최하는 다양한 부지 및 시설 등이 필요하지만 현행법 상 많은 제약이 존재함.
- 직거래장터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거래 활성화 관한 법률이 추진될 때 직거래장터 관련 예외조항을 명시하거나 특별법 형태로 추진되어야 함.

## 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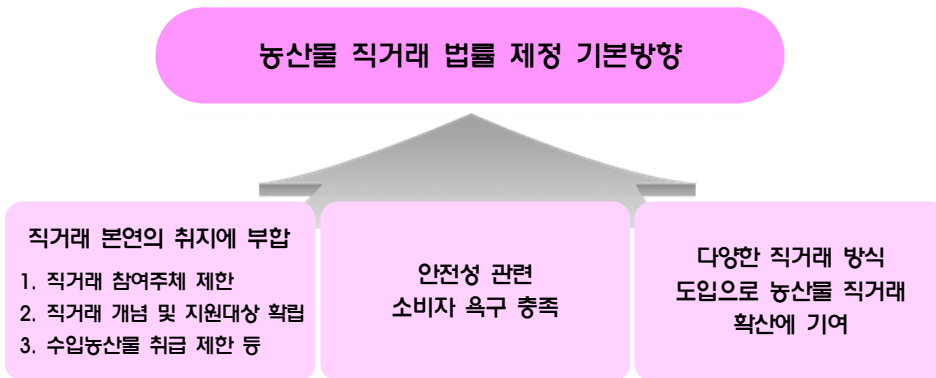
### 3.1. 기본방향

- 농산물 직거래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 수취가격 증가, 소비자 지불가격 인하 등의 직거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가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 수취가격 증가, 소비자 지불가격 인하 등의 근본적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가 본연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거래 개념 및 범위, 직거래 참여 주체, 정부지원 대상, 직거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1) 황의식 외(2012. 2)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를 일부 발췌 및 요약하였음.

- 농산물 직거래는 안전성 관련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내산 안전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 지금까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주체는 주로 유통업자, 자영업자 등이 국내산 또는 수입산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없었음.
  - 농산물 직거래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안전성 관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 본연의 취지를 지향하는 다양한 직거래 방식이 등장하여 직거래 확산 및 홍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농산물 직거래는 관행적인 방식의 직거래장터, 직매장,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농산물 직거래가 지역사회의 문화 및 관광,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등장하여야 함.

【 농산물 직거래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



## 3.2. 직거래 활성화 관련 법률제정 시 고려사항

### 3.2.1. 농산물 직거래 본연의 취지에 부합

- 농산물 직거래 관련 정책 사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직거래에 참여하는 주체가 생산자에 한정될 수 있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에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계통출하가 포함되어 정부지원 사업이 실시될 경우 직거래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됨.
- 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개설자는 농협, 지자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참여 및 판매주체는 생산자에 국한될 수 있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 운영주체가 직거래장터, 직판장, 정보통신 등을 활용한 직거래 등으로 다양한 직거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직거래 구성원이 생산자에 국한되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법에는 농산물 직거래 정의를 확립하고 직거래 유형을 구분하여 정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학계 및 연구계는 농산물 직거래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거래”로 구분하고 있지만 직거래 개념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거래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 그러므로 직거래 정의 및 개념이 직거래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수입농산물 취급이 제한되어야 함.

### 3.2.2. 소비자 신뢰 확보

- 직거래 인증제 도입
  -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에 난립하고 있는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통단계 축소 및 직거래 출하경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거래 인증제도

를 도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에 노변 판매대, 아파트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품질, 가격, 유통단계, 판매주체 등을 신뢰할 수 없어 소비자 신뢰도가 낮음.
- 정부는 직거래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하여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 수취가격 증대, 소비자 지불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직거래 인증제도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 유통단계 절감, 유통비용 축소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 직거래 유형 구분: 현재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유형의 직거래를 직거래장터, 직매장,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직거래 등으로 단순화하여 유형별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직거래 유형별 운영방식 제정을 통한 인증기준 확립: 직거래 유형이 분류되면 각각의 유형별 운영방식이 제정되어 인증기준이 확립되어야 함. 예를 들어 직거래장터의 경우 생산자 참여, 취급품목 및 물량, 안전성 확립 여부, 직거래장터의 운영 규약, 상설화 지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지원내용 명시: 정부의 직거래 인증을 받은 직거래장터, 직매장, 정보통신 등을 활용한 직거래에 대해서는 직거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안전성 기준 확립: 농산물 직거래 인증을 취득한 운영주체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성 검사 기준을 따를 수 있어야 함.
  - 원산지표시: 국산농산물 취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함.
  - 참여주체: 직거래 참여주체는 생산자로 제한되어야 함.
  - 개설자의 운영계획: 직거래장터, 직매장 등의 개설자 및 운영자가 생산자와 직거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개설자의 운영 수수료: 직거래장터, 직매장 등의 개설자가 생산자에게 장소 제공 및 운영비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약 10% 정도)의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함.

-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인증취소: 직거래 개설자가 인증을 취득하였더라도 평가, 민원 발생 사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함.
- 단순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단순 가공식품이 직거래장터, 직매장,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공식품 안전성 관련 기준을 충분히 검토 및 적용한 후 판매되어야 함.
- 최근 식품관련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법률이 엄격해지고 있음.
  - 정부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원재료 품질 수준 저하, 비위생적인 제조 및 판매 등을 “4대 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이 식품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단속될 경우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가공식품 안전성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함.
- 미국과 일본은 단순 가공식품의 직거래장터 판매를 농가 소득 향상 측면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직거래장터 등에서 단순 가공식품이 판매되어 농가 소득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법 등을 검토 및 홍보하여 직거래 운영주체가 참여주체와 가공식품 관련 안전성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2.3. 농산물 직거래 확산에 기여

- 농산물 직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비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함.
  - 지금까지 농산물 직거래는 단순히 직거래장터, 직매장 등의 일률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
- 농산물 직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직거래 콘테스트 등을 통하

여 신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홍보될 수 있어야 함.

-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직거래도 단순히 중계자 역할에만 머무르는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벗어나 생산자 관리와 온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가 개설형태에 따라 지자체의 행사, 관광 및 문화, 청소년 체험 활동 등과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가 필요함.
  - 현행 직거래장터 개설은 공간 활용에 대한 관련법의 제한이 많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므로 직거래장터가 지자체 행사 장소, 놀이 공원, 체육 시설, 관광지 등에서 자유롭게 개설되어 직거래 확대에 기여하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검토 및 개정되어야 함.
- 직매장도 농협 하나로 마트 및 도로 직판장에 국한되지 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대도시 직거래 전문매장 등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함.

#### 4. 참고 문헌

- 국승용 외. 2012.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환 외. 1998.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외. 1999. 「농축산물 유통경로간 효율성 비교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수. 2012. 「조합연합·공동사업의 성공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농업·농촌의 길.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각 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박동규 외. 2001.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계약의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 외. 2011. 「농협경제사업의 미래비전과 활성화 방안 제4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하나. 2012. 「신선청과물 유통규모 및 유통경로 추정」.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이명기 외. 2011.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분석 및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민기. 2010. 「산지유통조직 체계화 비전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통권33호.
- 전영미. 2003. 「도시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한 농촌마을의 관광자원 실태와 정비방향」. 농촌계획 제9권 제1호. 한국농촌계획학회.
- 전창근 외. 2007.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1.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태와 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 외. 2011.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군 심층평가」. KREI 농정포커스 제1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2.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2.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